

신중년 도시재생 창업지원 프로젝트
2019년 점프업5060 성과보고집

동네와 골목을 바꾸는 창업가들



신중년 도시재생 창업지원 프로젝트
2019년 점프업5060 성과보고집

동네와 골목을 바꾸는 창업가들

동네와
골목
바골

창업가 대모집

창업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동네와 골목에 다시 사람들을 불러 모으세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지혜와 열정을 겸비한
신중년 도시재생 창업가의 탄생을 지원합니다.

모집 기간

2019. 7. 4. ~ 8. 5.

신청 자격

도시재생 창업을 희망하는 대한민국 국적

신중년 세대(만 50~64세)

※ 개인(1인) 또는 팀(2인) 모두 가능

※ 3년 미만 기창업자 참여가능

※ 전국 단위 모집

참여 혜택

교육생 무료 교육, 교육 실비 지급

교육 수료팀 해외탐방(자부담 발생), 사업 고도화 컨설팅,

우수팀 사업화자금 지원(최대 2천만원 이내)

사업설명회

7월 12일(금) 14시 서울시50플러스 서부캠퍼스 4층 두루두루강당

※ 사전참가신청(jumpup5060.or.kr) 필수

추진 일정

2019년 7월 참여자 모집 | **8월** 교육생 선발

8월~12월 필수교육과정(창업교육, 현장연수), 해외 탐방

2020년 1월 사업화 지원팀 선발

1~5월 사업화 지원금 집행 및 정산, 사업 고도화 컨설팅

6월 성과 공유

※ 2019년 해외탐방, 2020년 일정은 교육수료생만 참여



jumpup5060.or.kr

Jump-Up 5060 더 알아보기

더 자세한 정보와 신청: 접수는

Jump-Up5060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좌측 QR코드를 촬영하시면

Jump-up5060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문의: 서울시50플러스재단 사업개발팀 02-460-5063

* 상기내용은 사업운영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여서 더 따뜻했던 이야기

지난 1년간 한결같은 열정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해주신 창업가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했던 시간, 아름다웠던 기억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도시재생을 실현하는 길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정말 행복했습니다.

물리적 환경만이 아닌, 주민들의 삶도 함께 변화시킬 때, 비로소 도시재생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을 사랑하고,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점프업5060이 의미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는 신종년 창업가들은 골목골목을 누비며 동네에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이웃과 정겹게 교류하는 공간을 만들어 공동체를 되살리기도 하고, 지역의 역사와 특색을 담아낸 사업 아이템으로 새로운 활력을 더하기도 했습니다.

마을이 달라지고, 사람이 다시 모이게 된 것도 값진 결실이지만, 신종년 세대가 용기 있게 제2의 인생에 도전한 것부터가 무엇보다 큰 감동을 주는 일입니다. 그들의 포기하지 않는 도전 정신이 녹아있는 이야기들이 인생의 또 다른 출발점에 서 있는 우리 사회의 신종년 세대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로서도 새로운 모험이었던 이번 프로젝트에 함께 힘써주신 서울시50플러스재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총무고객처 직원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꿈을 가진 사람은 모두가 청년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새로운 내일에 도전하는 창업가들을 힘차게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도 점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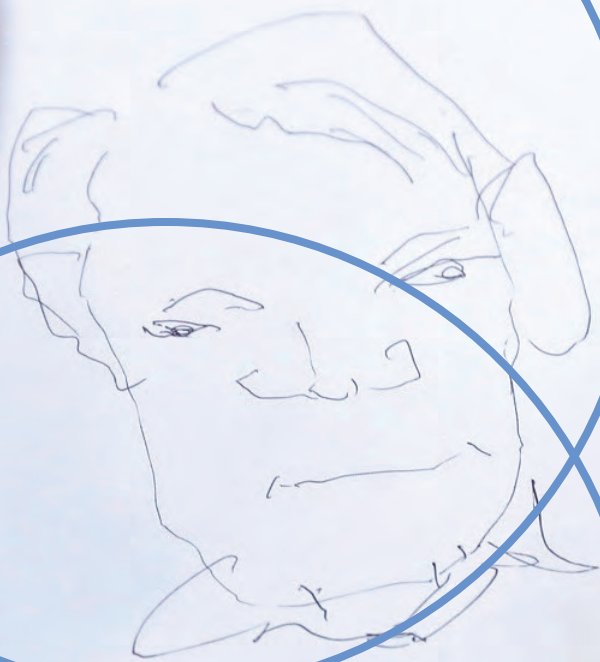
설레고 즐거웠습니다. 2019년 점프업5060 참여 팀의 사업계획서 한 장 한 장마다 동네와 골목의 변화를 끌어낼 흥미로운 아이디어가 가득했습니다. 누군가의 열정과 의지가 빚어낸 결과물은 보는 이의 가슴도 뛰게 합니다. 변화를 갈망하고, 상상을 현실로 바꾸는 신중년 창업가의 도전에 감명 받았습니다. 2019년 점프업5060에 함께한 25개 참여 팀 여러분, 고맙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신중년 도시재생 창업가의 탄생에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양질의 교육부터 국내외 탐방, 컨설팅과 사업비 지원에 이르기까지, 1년여의 사업 기간 무엇 하나 소홀할 없도록 세심하게 마음 썼습니다. 신중년 세대 지원 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만든다는 공동의 목표 아래 늘 재단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주었습니다.

재단은 신중년 세대가 계속 일하고, 활발히 사회활동을 이어가도록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신중년 세대가 활약할 새 분야를 발굴하는 일은 재단 일자리 사업의 중요한 미션이기 때문에, 공사와 같은 전문성을 지닌 파트너와의 협업이 꼭 필요합니다. 점프업5060을 통해 도시재생 분야라는 새로운 무대에서 다수의 신중년 세대 창업 사례를 발굴할 수 있었습니다. 재단 일자리 사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전기가 되었습니다.

점프업5060은 전국의 신중년 세대에게도 도약의 계기를 제공할 것입니다. 2019년 점프업5060 참여 팀의 활약은 신중년 세대가 동네와 골목, 더 나아가 지역과 사회를 바꿀 무한한 잠재력을 지녔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이를 지켜본 더 많은 신중년 세대가 자신감을 안고 기꺼이 나설 것입니다.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점프업5060은 계속됩니다. 모두 또 한 번 도약할 것입니다.

01



- 김기원 씨.
- 이대희양에게 무관심 → 정리정돈
- 18-2019년 1학기 → 정리정돈
- 친구들

점포업5060 핵심정리

- 01 신종년 도시재생 창업가 발굴
- 02 새로운 무대, 새로운 기회
- 03 단계를 나눠 더 내실 있게
- 04 특별한 파트너십



신중년 도시재생 창업가 발굴

점프업5060은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신중년 도시재생 창업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함께 합니다.

● 지원 대상

- 도시재생 창업을 희망하는 신중년(만 50~64세)
- 창업 희망자 혹은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체 대표자
- 1인 또는 최대 2인 팀으로 지원 가능(구성원 모두 신중년이어야 함)

● 도시재생 창업 아이템 예시

- 낙후한 지역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창업 아이템
- 주민이 소통하고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돕는 창업 아이템
- 주민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창업 아이템

● 지원 내용

- 도시(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을 가진 창업가를 발굴해 교육과 컨설팅, 사업화를 지원함
- 260시간 교육·실습 기회 제공
- 교육 수료생 대상 사업 고도화 컨설팅, 사업화 지원금 팀별 최대 2천만 원 지원

● 참여자 선발



1차 서류 심사



2차 발표 및 대면 심사

● 사업 기간

2019년 6월~2020년 8월

새로운 무대, 새로운 기회

계속 일해야 하지만, 선택지가 많지 않죠. 생계형 창업에 뛰어드는 신중년 세대 앞에는 치열한 경쟁과 불안한 미래가 기다립니다. 점프업5060은 신중년 세대가 도시재생 분야에서 새로운 서비스로 시장을 개척하는 기회형 창업에 도전하도록 지원합니다.

신중년 세대 창업 현실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위주
과밀·과열 시장
생계형 창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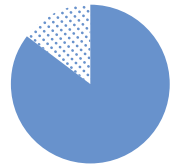
VS

점프업5060
도시재생 분야
새로운 시장
기회형 창업

근속기간 3년 미만
중장년
비임금근로자 비율

85.3%

통계청 「2018년 기준 중·장년층 행정통계」



2008년/2017년
50세 이상 자영업자 변동 추이

288만 명 → 335만 명

중소기업연구원 「자영업 통계 및 지원정책 현황조사」
(2018.11)

6개월 이상
장기실업 상태
중장년 구직자 비율

60%

전경련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2020년 중장년 구직활동 실태조사」



단계를 나눠 더 내실 있게

점프업5060은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두 단계로 나눠 참여 팀의 사업화를 지원합니다. 사업화 1단계에서는 창업 기본기를 다질 수 있는 강도 높은 교육을 시행합니다. 1단계 수료 팀을 대상으로 사업화 2단계를 시행합니다. 고도화 컨설팅과 사업비 지원으로 창업 아이템을 매끄럽게 현실화하도록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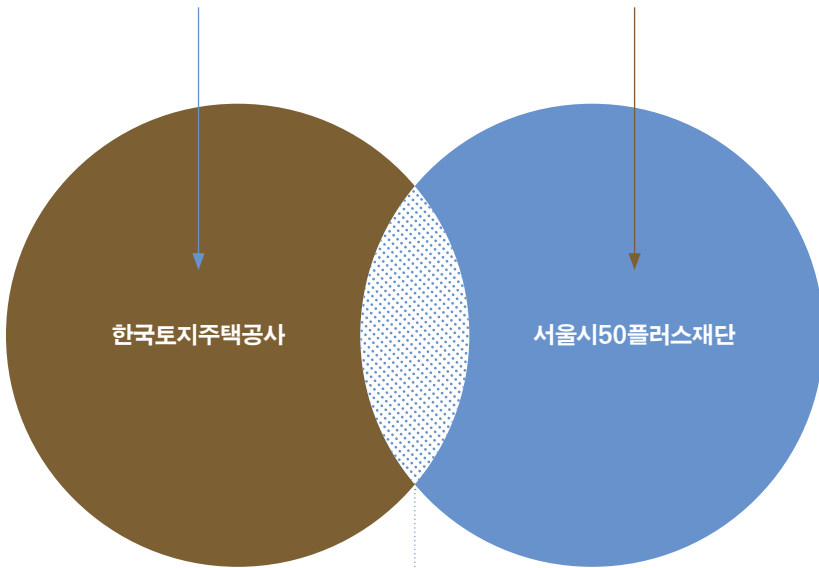


특별한 파트너십

2015년부터 청년 소셜벤처를 지원해온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다른 세대로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했고,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신중년 세대의 새로운 일자리 분야를 찾고 있었죠. 두 기관의 필요와 전문성이 만나 공사의 전문 사업 분야인 도시재생 분야에서 신중년 세대 창업가를 발굴하는 점프업5060이 탄생했습니다.

- 다년간 청년 소셜벤처 지원 경험
-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추진 경험
- 청년 세대 외 지원 대상 확대 필요

- 전국 최초 신중년 세대 전문 지원 기관
- 창업·전직 등 신중년 세대 일자리 사업 추진 경험
- 신중년 세대 新 일자리 분야 발굴 필요



신중년 도시재생 창업지원 프로젝트
점프업5060



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시50플러스재단 업무 협약(2019.6.20)



점프업5060 사업설명회(2019.7.12)



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시50플러스재단 실무진 워크숍(2019. 10. 22~23)



한국토지주택공사 감사패 수여(서울시 50+일자리 성과공유회, 2019. 12. 10)

점프업5060 참여 팀(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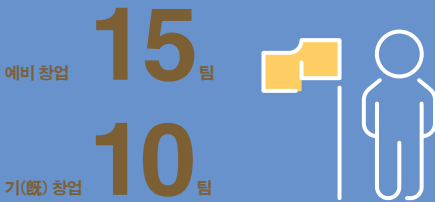
25
팀
30
명

점프업5060 참가자 평균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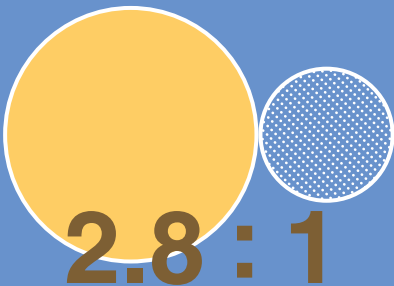


55
세

점프업5060 참여 팀 창업 여부 분류
(2019년 12월 기준)



점프업5060 참여 팀 선발 경쟁률



점프업5060 참여자 성별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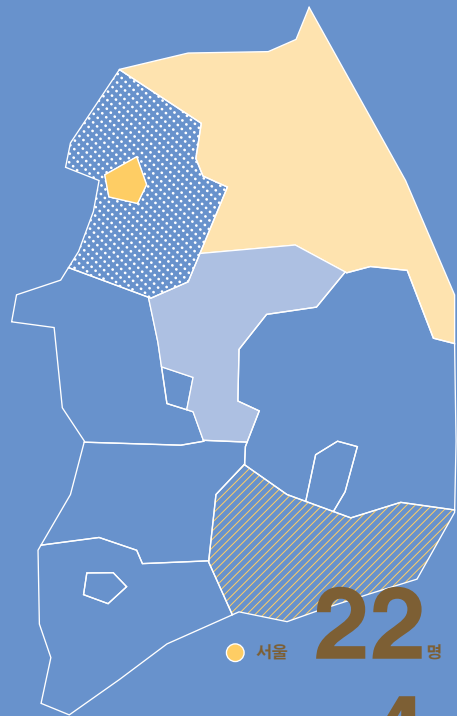


남성 13 명

여성 17 명



점프업5060 참여자 지역 분류



점프업5060 총 교육·실습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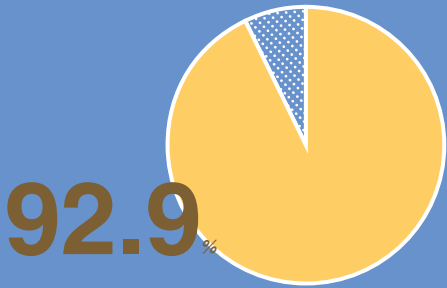
260 시간

점프업5060 참여자 교육 전후 창업 진단검사
평균 점수 상승률



275.2 %

점프업5060 교육 참여율



점프업5060 2019년→2020년
모집 인원·예산·사업비 지원 대상 확대 현황



30 명 → 50 명

점프업5060 참여자 교육 만족도
(5점 만점 기준)



6 만 원 → 8 만 원



10 팀 내외 → 12 팀 내외





02



참여 팀 열전

강재훈 · 동네창업카페
구본숙 · 북스테이 산책
길기태 · 이대웨딩협동조합
김병준, 서창희 · NOW
김은주, 박유하 · 마음돌봄 동네책방 모모
박경정 · 농촌명당닷컴
박서영 · (주)캘리엄
박장배 · 아트필
박현정 · 북촌탁구
송종훈 · 19세기발전소
안인선 · 동감
양해경 · 에프하임
염기명 · 고성회관
윤선영 · 광명 공유부엌
이경미 · 펫빌리지
이인환 · 부산동구마을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이정민 · 북살롱 와일드박스
이향연, 김원식 · 영 플러스
임성호, 원라미 · 노마드 여행 카페
전순희 · 수니폴리마켓
조소연 · 마켓발견
조재천 · 종로선글TV



동네창업카페

강재훈

창업 지역	경상남도 진주시
<p>동네창업카페는 창업 과정에서 적절한 도움을 받기 힘든 지역 청년이나 지역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창업 컨설팅을 제공하는 동네 창업가 양성소입니다. 관련 사업 경험이 있거나 사업 지역을 잘 아는 전문가를 매칭해 창업 실패율을 낮추고, 상권 분석, 인허가 등 꼭 필요한 창업 실무를 중심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합니다.</p> <p>창업가가 거주하는 진주시에는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방황하는 청년이 많습니다. 이대로는 지역의 미래가 없다는 절박함이 커졌습니다. 동네창업카페는 지역의 청년이 성공적인 창업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해, 다시 지역으로 청년을 불러들이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 진주시 도시재생에 기여하고자 합니다.</p>	

창업가 강재훈님은 다양한 점포 창업 경험과 다년간 건설업, 중개업에 몸담으면서 익힌 현장 노하우를 바탕으로 창업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창업대학원에 진학해 졸업했고, 4년째 창업진흥원 제품개선 아카데미의 기업 코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강의, 방송 출연, 봉사 활동으로 늘 바쁜 일상을 보내는 창업가지만, 앞으로는 더욱 분주해질 예정입니다. 진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동네와 골목마다 창업카페 체인점을 열어 도시재생 프랜차이즈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에서든 사람들이 일하고, 성공하도록 돕는 창업가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66 미래를 위해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되었죠

99



점프업5060에는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나요.

SNS를 통해서 사업 공고를 처음 접했습니다. 제대로 된 창업 교육 과정을 찾고 있었는데, 매력적인 프로그램이 많아 보였고 무엇보다 실무 중심의 교육 과정이라고 느껴졌어요. 비록 진주에서 천 리 길, 서울로 가야 했지만 물리적인 거리는 감수할 수 있었죠.

점프업5060 참여로 얻은 가장 중요한 성과를 소개해주세요.

수익 모델링이 보다 명확해졌습니다. 코칭을 받는 과정이 많이 힘들었지만, 지속해서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하나씩 다듬어갔습니다. 고객 설정을 다시 해보면서 진정한 타겟 고객층을 파악하고, 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 참여 전후로 겪은 가장 큰 개인적인 변화는 무엇인가요.

삶에 대하는 태도가 좀 더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에 도전하는 분들과 어울리면서, 창업이나 지역을 바라보는 관점이 더 생산적이고 건설적으로 변했어요. 무엇보다 미래 계획을 위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점프업5060 참여나 창업으로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소개해주세요.

생계를 위해 급하게 가게를 여는 분이나 경험이 적은 청년들의 창업에 도움을 주겠다는 사명감으로 점프업 5060에 참여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실제로 장사를 해 본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장사 경험이 있는 분을 통해 실질적인 실무를 익히고, 제대로 된 멘토링, 컨설팅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

2020년 5월 현재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존에 사용하던 사무실을 활용해 창업카페를 열었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컨설팅과 멘토링 활동을 신나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북스테이 산책

구본숙

창업 지역	경기도 파주시
<p>북스테이 산책은 느리게, 그러나 지루하지 않게 하루를 보낼 수 있는 북스테이 게스트하우스입니다. 마음껏 책을 읽으며 하룻밤을 보낼 수 있고, 그림과 글쓰기를 주제로 모임을 열거나 수업을 들을 수 있죠. 간단한 식사와 음료도 즐길 수 있고요. 예술가에게는 작업에 몰두할 수 있는 창작 공간을 제공합니다.</p> <p>연고가 있어 파주를 방문할 때마다 창업가는 미군기지 이전 등으로 지역이 많이 한적해졌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듣기 어려웠죠. 인근 지역에는 아파트 단지가 많으니 이 조용한 곳에 부모가 아이와 함께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어떨까 생각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입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다시 모이고, 지역에서 또 다른 시도가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말이죠.</p>	

창업가 구본숙님은 방송국 작가, 사회복지사로 일했고, 노인 요양 사업을 운영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림책을 좋아해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에서 그림책 교육을 수강했고, 관련 커뮤니티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케이터링, 도시민박 창업 교육을 수료하는 등 부지런히 창업에 필요한 역량을 쌓아왔습니다.

오랜 시간 전업주부 생활을 하다 삶의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학습과 커뮤니티 활동에 나섰습니다. 사람들과 교류하며 정보를 얻고, 시야의 확장을 경험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며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고 싶다는 바람을 이루기 위해 창업가로서 또 다른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66

주변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성숙한 시민, 주민, 이웃으로

99

점프업5060에는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나요.

전업주부로 35년을 보낸 뒤 삶을 되돌아보던 즈음이었어요. 남편도 퇴직 후 집에서 책을 읽거나 모임에 나가는 정도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둘이 인생 후반을 어떻게 하면 잘 보낼 수 있을까 고민했고, 같이 할 수 있는 일을 찾던 중 점프업5060 공고를 접했습니다.

점프업5060 참여로 얻은 가장 중요한 성과를 소개해주세요.

사업 아이템과 사업 장소를 정하고, 사업에 확신을 갖게 되기까지 교육의 역할이 컸습니다. 사업 구상을 구체화하고, 목표를 정해 실행할 힘을 길러줬습니다. 현장실습에서는 이론 교육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경우의 수가 많이 발생했고,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학습할 수 있었죠. 컨설팅에서는 사업화 단계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점들에 대해 팁을 얻을 수 있었어요.

사업 참여 전후로 겪은 가장 큰 개인적인 변화는 무엇인가요.

자존감이 높아졌습니다. 사업 참여 과정에서 겪은 적당한 긴장감과 스트레스도 지나고 보니 비타민처럼 몸에 잘 흡수되어 활력소가 되었고요. 여러 분야에서 오래 활동해 온 분들과의 교류도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려온 제게 변화를 가져다주었죠. 주변을 좀 더 넓게 둘러보는 시선이 생겼습니다.

점프업5060 참여나 창업으로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소개해주세요.

지금까지는 가족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주변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성숙한 시민, 주민, 이웃이 되고 싶습니다. 책과 함께 이웃이나 친구들과 소통하고, 수익이 생긴다면 그들과 나누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2020년 5월 현재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복스테이 사업을 위해 장소를 결정했고, 로고도 완성했어요. 공간 리모델링을 진행하기 위해 업체와 계약 전에 견적을 상세히 조율하고 있습니다. 3주 정도로 공사 기간을 잡았고, 늦어도 7월 1일 이전에 공사를 마치고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후 사업에 참여할 후배 신중년 세대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요.

느긋한 일상을 보내면서 현재에 만족하며 지낸 시간이 너무 아쉽습니다. 건강하기만 하면 10~20년은 더 활동할 수 있는 나이죠. 교육 기관도 많고, 아이템만 좋으면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무궁무진합니다.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참여해보고, 도전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각계에서 활동하셨던 분들과의 정보 공유만으로도 앞으로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

이대웨딩협동조합

길기태

창업 지역

서울시 서대문구

이대웨딩협동조합은 이대웨딩거리의 사업자들이 모여 스몰 웨딩 공동 브랜드를 구축하고, 함께 사업을 전개하며 스몰 웨딩 특화지구를 조성해가는 단체입니다. 작은 결혼식으로도 불리는 스몰 웨딩은 합리적인 결혼 문화로 젊은 층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한복, 드레스 등 저마다 전문 분야를 가진 사업자들이 힘을 합쳐 직접 스몰 웨딩 상품을 판매하고, 다양한 문화 행사를 기획해 스몰 웨딩 문화를 전파합니다.

이대웨딩거리는 199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 결혼 산업을 대표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련된 디자인과 온라인 마케팅 능력을 앞세운 타지역 업체들에게 주도권을 넘기고, 결혼 인구도 줄면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대웨딩협동조합은 사업자 간의 협력과 차별화된 전략을 앞세워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거리를 되찾으려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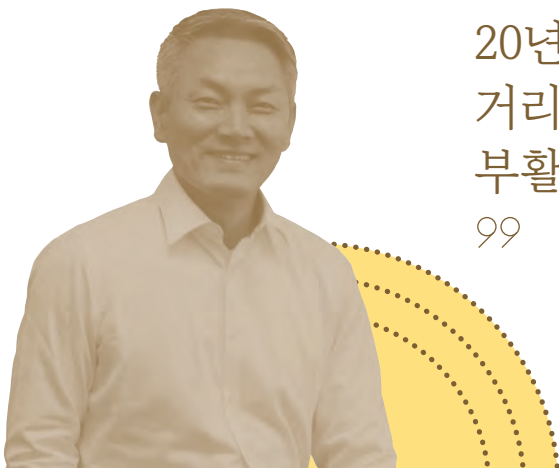
창업가 길기태님은 한복 사업 21년 경력의 베테랑 사업자입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이대웨딩거리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꾸려왔지만, 오랜 기간 지역 상권의 쇠락을 지켜보며 아픔도 느껴야 했습니다. 대형 쇼핑몰의 등장이 지역 상인들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직접 목격하며, 도시재생은 반드시 지역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이대웨딩거리 활성화를 위한 고민을 오래 이어왔고, 이제 이웃 동료들과 함께 실행에 나서고자 합니다. 코워킹 스페이스를 만들어 신진 웨딩 기획자와 디자이너를 양성한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지역에 젊은 세대가 유입되고, 이들이 지역에서 성장해야 지속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할 수 있다는 신념 때문입니다.





이대웨딩협동조합
길기태



66

20년 이웃들과 거리를 부활시키겠습니다

99

점프업5060에는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나요.

도시재생이라는 말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고,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고민해왔습니다. 2017년에 인근의 테마 카페와 협의해 스몰 웨딩 사업을 추진하다 중단한 적이 있었어요. 아쉬움을 안고 있었는데, 점프업5060 공고를 보고 '웨딩거리 활성화 사업과 연결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점프업5060 참여로 얻은 가장 중요한 성과를 소개해주세요.

교육, 현장실습, 컨설팅 모두가 중요했습니다. 교육은 아이디어를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죠. 현장실습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파악하고 회사 설립을 준비하는 데 좋은 참고가 되었고요. 컨설팅에서는 실제로 현장에서 고민하는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업 참여 전후로 겪은 가장 큰 개인적인 변화는 무엇인가요.

지역을 바라보는 시각과 일에 임하는 자세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나부터 작은 일을 시작하고,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과 공유하고, 여러 사람이 함께 노력하면 지역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점프업5060 진행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젊은 강사분들에게 교육과 멘토링을 받아 비즈니스 모델을 완성하고 발표까지 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쳤어요. 교육자와 교육생들의 세대 차이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이 매끄럽게 진행되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점프업5060 참여나 창업으로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소개해주세요.

이대웨딩거리에서 20년 이상을 함께 지낸 이웃들과 거리를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더불어 젊은이들이 이곳에서 등지를 틀고, 웨딩 관련 창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2020년 5월 현재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전통미가 있는 공간을 섭외해 스몰 웨딩 장소를 확보했습니다. 자사 건물 일부를 코워킹 공간으로 만들어 젊은 웨딩 기획자를 유치하기 위해 전문가들에게 컨설팅을 받았고요. 교육을 진행한 언더독스 김민경 디렉터와 계속 협의하며 전문 컨설턴트를 소개받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도 찾아보는 중입니다.

NOW

김병준

서창희

창업 지역

서울시 은평구

NOW는 트로트를 매개로 놀거리, 먹거리, 일거리를 제공하는 트로트 이야기 카페입니다. 라이브 공연, LP 감상회, 악기 감성으로 트로트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마을 주민을 트로트 이야기 해설사로 양성해 새로운 활동의 기회를 만듭니다. 시원한 음료와 마을 베이커리에서 만든 빵을 맛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죠.

은평구에는 많은 신중년 세대가 살고 있지만, 유흥시설을 제외하면 이들이 편하게 시간을 보낼 문화·여가 공간이 마땅치 않습니다. NOW는 지역의 신중년 세대가 개방적이고 쾌적한 공간에서 트로트를 매개로 같이 즐기고, 반갑게 만나고, 함께 미래를 모색하는 복합 문화공간이 될 것입니다.

창업가 김병준, 서창희 님은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 50+인생학교의 동기입니다. 두 분 모두 외국계 기업 고위직을 역임한 경력을 갖고 있죠. 오십 이후 삶의 경로를 모색하는 50+인생학교 입문과정과 심화과정을 함께 수료하고, 인생학교 강사로도 활동하던 두 분은 새로운 삶을 위한 철학과 의지를 창업으로 구현하고자 의기투합했습니다.

공공성을 추구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하던 중 신중년 세대로서의 고민과 은평구 거주 경험에 착안해 창업 아이템의 방향성을 세웠고, 점프업5060 참여 과정에서 현재의 아이템을 도출했습니다. 두 창업가가 트로트에 주목하는 이유는 세대를 뛰어넘어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고, 함께 어울리기 좋은 음악이기 때문입니다.



이상보다는 당장 실현 가능한 접근법을



점프업5060에는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나요.

50+인생학교 심화과정 1기 수료생을 중심으로, 선배 시민으로서 사회를 위한 선한 의지를 실행하기 위해 단체 결성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점프업5060 공고를 접했을 때, 이러한 비전을 실현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죠.

점프업5060 참여로 얻은 가장 중요한 성과를 소개해주세요.

처음에 구상한 아이템은 '시니어 융합학교'였어요. 마을의 신중년 세대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거나 일자리를 찾도록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는 곳으로, 폐교를 활용하는 꽤 큰 규모의 창업 아이템이죠. 그러나 교육을 거치면서 창업 과정에서 이상을 추구하기보다는 당장 실현 가능한 접근법을 택해야 한다는 점을 배울 수 있었어요. 창업 아이템을 현실적으로 조정해 트로트 카페를 선정했습니다.

사업 참여 전후로 겪은 가장 큰 개인적인 변화는 무엇인가요.

전에는 비슷한 처지의 신중년 세대 선생님들과 인생 2막을 유유자적하며 즐기는 태도로 보내려고 했는데, 도시재생이라는 미션과 창업을 접목하면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사회에 뛰어들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두려움도 있지만, 가슴 뛰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열정과 에너지가 다시 살아나고 있음을 강렬하게 느낍니다.

점프업5060 진행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창업의 가능성을 점검하는 MVP 행사를 준비하면서 동기분들의 도움에 크게 감동했습니다. 조재천 선생님 덕분에 세운사가 내 사무실에서 행사를 열 수 있었고, 엄기명 선생님은 홍보물 디자인에 큰 도움을 주셨어요, 행사 당일에는 많은 동기분이 헌신적으로 행사 준비를 도와주셨습니다.

점프업5060 참여나 창업으로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소개해주세요.

트로트를 매개로 편(fun)한 문화 공간을 조성해, 동네와 골목의 소통 부재를 해결하고 활기찬 지역을 만드는 것입니다. 세대 간 소통을 끌어내고 일상에 지친 모든 이들을 위로하는 감성 문화 아지트를 만들고자 합니다.

2020년 5월 현재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카페 공간을 마련하지 못해 사업 출발이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대안으로 유튜브 채널을 오픈하기 위해 전문 교육과 컨설팅을 받고 있어요. 은평구 불광역과 새절역 주변에서 공간 후보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7월 말~8월 초 오픈을 목표로 분야별 전문가를 영입해 내실을 다지고 있습니다.

마음돌봄동네책방모모

김은주

박유하

창업 지역	서울시 도봉구		
밴드	마음돌봄 동네책방 모모		
페이스북	@mojorimoida	인스타그램	@momo_bookshop
주소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181나길 16		

마음돌봄 동네책방 모모는 책을 매개로 주민들이 모이고, 서로 배우고, 함께 마을의 문화를 만드는 공간입니다. 한적한 주택가에 자리 잡은 모모는 좋은 책을 선별해 주민에게 소개합니다. 함께 읽고 싶은 책을 선정해 독서 모임을 열고, 주민 모임을 위해 공간을 빌려줍니다. 모모에서 만난 주민들이 함께 마을공동체 사업에 응모하거나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는 베이스캠프로 변신하기도 합니다.

모모가 등지를 튼 곳은 도봉동입니다. 주민의 문화 욕구는 높지만 시설과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도봉구에서도 외곽에 위치해 다른 지역으로 편하게 이동하기 쉽지 않은 곳이죠. 아이와 편하게 들를 집 근처 문화 공간, 힘들여 나가지 않아도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 꼭 필요한 동네에 모모가 등장했습니다.

창업가 김은주, 박유하 님은 마음돌봄 동네책방 모모를 함께 꾸려가는 사업 파트너이자 부부입니다. 김은주 님은 시니어 교육 및 상담 전문가로 웰다잉 교육, 치매 예방 등의 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박유하 님은 수십 년 경력의 조경 전문가로 다수의 골목길 조성 및 미니 가드닝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 분은 인생 후반부 계획을 세우기 위해 서울시50플러스 캠퍼스의 여러 강의를 들으며 대안을 모색하다, 점프업5060 공고를 접하고 동네 책방 사업 아이템을 구상했습니다.

두 창업가는 젊은 시절과 달리 일터와 삶터가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거주하는 단독 주택의 반 지하 공간을 책방으로 꾸며 모모를 오픈했습니다. 벌써 동네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명소가 되었고, 언론에도 수차례 소개되었죠. 조용한 곳에서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고 싶다는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점프업5060 참여로 얻은 가장 중요한 성과를 소개해주세요.

모모는 처음부터 끝까지 점프업5060 교육 내용대로 사업을 구상하고 실행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수익 모델 만들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만드는 동네 책방에서 얼마의 수익을 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비용을 지불한다는 생각보다 문화를 공유한다는 생각에 만족스러운 소비를 할 수 있을까와 같은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수익이 없으면 사업을 유지하기 힘들고, 수익에 욕심을 내면 처음의 목표가 흔들리지 않을까 고민했죠. 점프업5060 참여 과정에서 이러한 고민을 거쳐 동네 책방의 콘셉트를 잡고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사업 참여 전후로 겪은 가장 큰 개인적인 변화는 무엇인가요.

큰 성공을 거둔 건 아니어도 나름대로 잘 해낸 것 같은데, 나보다 더 나은 삶이 눈에 보이고, 오늘의 행복을 내 일을 위해 미루며 끝도 없이 달려야 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마을 사람들과 독서모임을 하며 “우리에게 고향이 생겼다”라고 말할 때, 나의 삶도 마을 사람들의 삶도 조금씩 변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점프업5060 진행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현장탐방 때마다 서점을 찾아 점프업5060 동기들과 함께했던 순간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저희에게 점프업5060은 단순한 교육이나 컨설팅이 아니라 동기들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시간입니다.

점프업5060 참여나 창업으로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소개해주세요.

책과 인문학을 통해 마을 문화를 만들고, 문화를 중심으로 주민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형성된 공동체가 진정한 마을이며 고향이 될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책은 서로의 연결고리가 되고, 우리의 든든한 지지자가 될 것입니다.

2020년 5월 현재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교육 수료와 함께 창업해 현재는 점프업5060 사업비 지원으로 공간 리모델링을 마치고 동네 문화 사랑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리모델링 후에는 모모를 소규모 공연장이나 관람 시설, 30명 이상이 모일 수 있는 주민 공론장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개방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상담실과 좌식 모임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뜨개 모임과 소그룹 취미방, 개인 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촌명당닷컴

박경정

창업 지역

전라남도 해남군

농촌명당닷컴은 풍수지리의 관점에서 명당에 위치한 농촌의 빈집을 선별해, 도시민에게 장기 체류 숙소로 임대하는 기업입니다. 빈집 일대에서 배출한 명사 등을 소재로 스토리텔링을 해 버려진 공간을 의미 있는 명소로 만들죠. 전원생활을 꿈꾸는 도시민에게 저렴하면서도 매력적인 숙소를 제공하고, 인구 유출과 공동화로 고민하는 지자체에는 경제 활성화 대안을 제시합니다.

창업가의 고향인 전남 해남군에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후 전국의 농촌 지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국 6만여 호에 달하는 농촌 빈집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지 오래죠. 농촌명당닷컴은 지역의 문제를 기회 자원으로 활용해 농촌의 황폐화를 막고, 실효성 있는 도농 교류 모델을 만듭니다.

창업가 박경정님은 두 차례 전직 대통령(김영삼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 조성 공사 책임자를 역임했고, 조선 왕릉의 풍수지리 입지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풍수 관련 강의와 저술 활동도 활발하게 펼치는 국내 최고의 풍수지리 전문가입니다.

30여 년간 연구한 전문 분야와 사업 모델을 결합한 박경정님은 부지런히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점프업5060 교육 기간에도 해남군 빈집 1차 실태 조사를 진행해 활용 가능한 18호의 집을 사업 대상으로 선별했습니다. 예약 시스템 구축, 해남군과의 협약 추진 등 사업 시행을 위한 선결 과제를 하나씩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66 지자체 140여 곳으로 사업 확대할 것 99

**점프업5060 참여로 얻은 가장 중요한 성과를 소개해주
세요.**

13주간 주 2일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사업계획서 만
큼은 확실하게 작성할 수 있는 실력을 배양했습니다.
첫째, 추상적인 회사 개요를 구체적으로 설정했고, 둘
째, 창업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 문제를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셋째, 사업 대상지 현실에 맞게 해결책
을 구체화했어요. 넷째, 시장 기회를 수치화해 규모를
파악했습니다. 다섯째, 2주 실습으로 시장의 경쟁 상황
을 파악할 수 있었어요. 여섯째, 교육 과정에서 여러 가
지 비즈니스 모델을 모색해 성공 가능성을 높였다고 생
각합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세우며 수입과 지출의 규모
를 파악해 사업 첫해부터 수지 분석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유용했습니다. 일곱째, 교육으로 다양한 모델을 학
습하고, 설문조사로 수요에 따른 단기 전략, 중장기 전
략을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 참여 전후로 겪은 가장 큰 개인적인 변화는 무엇인
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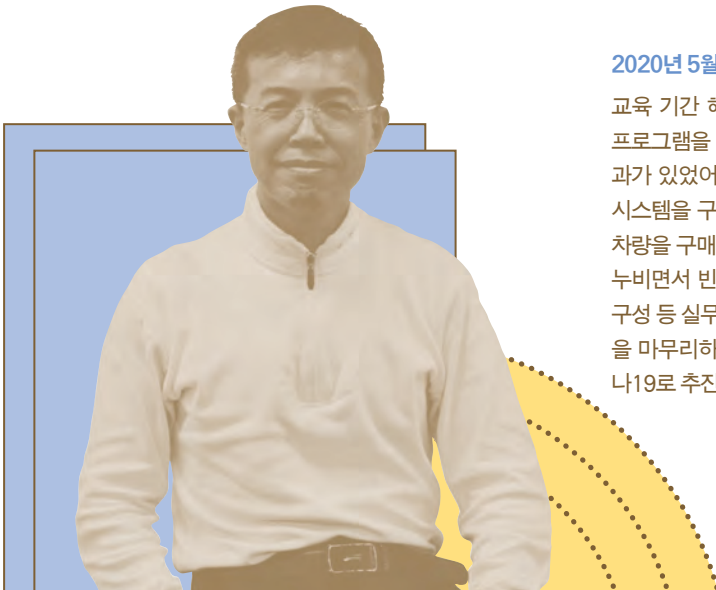
제 창업 아이템은 풍수지리 명당 개념을 활용해 농촌 빈
집에 도시민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상호를 '농촌명당닷컴'
'이라고 명명하고 나니, 농촌 지역을 살려야겠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이 막중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반드시
성공해 농촌 지역과 제 개인의 발전을 이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점프업5060 참여나 창업으로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소개해주세요.**

우선 해남 지역의 빈집을 활용해 지역 발전에 도움을 주
고, 전국 농촌 지역 지자체 140여 곳으로 사업을 확대
해 수익 기반을 안정화하고자 합니다. 시스템으로 수익
을 올리는 저만의 수익 모델을 구축하고자 해요. 돈 걱
정 없는 노후를 만들고 싶습니다.

2020년 5월 현재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교육 기간 해남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해,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찰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성
과가 있었어요. 6월 말 완료 계획으로 농촌 빈집 예약
시스템을 구축한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업용
차량을 구매해 홈페이지 제작 업체 대표와 해남 지역을
누비면서 빈집 실태 조사, 시설 사진 촬영, 스토리텔링
구성 등 실무 작업을 진행하고 있죠. 6월에 사업자 등록
을 마무리하고 7월부터 사업을 개시하려 했으나 코로
나19로 추진 일정이 8월로 늦춰졌습니다.



(주)캘리엠

박서영

창업 지역

강원도 고성군

(주)캘리엠은 로컬 디자인 활성화 플랫폼을 지향하는 기업입니다. 지역에 거점 공간을 마련해 지자체,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수준 높은 디자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로컬 디자이너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해 해당 지역에서 장기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기반을 마련하고요. 수도권 지역 디자이너와 로컬 디자이너의 협업을 추진하고, 지역에서 활동할 로컬 디자이너를 양성하는 것도 중요한 사업 목표입니다.

지역 브랜딩, 특산물 홍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역에서 디자인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에서는 디자이너를 찾기 어렵다는 인식 때문에, 지자체나 지역 기업마저 수도권 지역에 디자인을 의뢰합니다. 지역 특성을 잘 살린 디자인을 찾아보기 힘들고, 장기적인 디자인 품질 관리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로컬 디자이너의 성장 기회도 사라지고요. (주)캘리엠이 로컬 디자인 활성화를 추구하는 이유입니다.

창업가 박서영님은 캘리그래피 디자인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2016년 디자인 업체 (주)캘리엠을 창업했습니다.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고, 도시재생 관련 교육을 수강하면서 공공 디자인에 대한 관심을 높여 오던 중, 점프업5060 참여로 또 한 번 변화의 전기를 맞습니다. 로컬 디자인 활성화라는 새로운 사업 목표를 설정하게 된 것입니다.

강원도 고성군에서 시작합니다. 점프업5060 동기인 염기명 님과의 협업으로 고성군 로컬 브랜드 디자인 개선 사업에 참여했고, 1호 지역 거점 공간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로컬 디자이너 네트워크 구축, 로컬 디자이너 일자리 창출 및 교육 프로그램 설계, 로컬 디자인 관리 체계 정비 등의 과제를 하나씩 해결하고, 다른 지역으로도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점프업5060 참여로 얻은 가장 중요한 성과를 소개해주세요.

도시재생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진정한 의미의 도시재생은 겉모습이 아니라 참여와 소통을 통한 지역 활성화와 지속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장실습을 통해 도시재생 현장에서 주민과 직접 소통한 경험도 비즈니스 모델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점프업5060으로 알게 된 동료들과의 네트워크도 매우 중요한 성과입니다.

사업 참여 전후로 겪은 가장 큰 개인적인 변화는 무엇인가요.

도시재생이 참 어렵고 힘겨운 과정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좋아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이고 열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어요. 사람을 위하는 마음과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도요. 처음에 의욕만 넘쳤을 때보다는 좀 더 신중해졌습니다.

점프업5060 참여나 창업으로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소개해주세요.

점프업5060 참여 후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도시재생 분야 창업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팀을 구성해야 하는데, 30대 초반의 청년과 함께하게 되었어요. 제가 앞으로 추진할 도시재생 사업은 신중년과 청년이 함께하는 사업으로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신중년의 경험에 청년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더해 독창적인 콘텐츠 기반 사업을 하고 싶

어요. 제가 판을 깔면 청년들이 그 위에서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2020년 5월 현재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해 새로운 브랜딩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로컬 제품의 CI와 패키지 디자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은퇴한 시니어를 위한 놀거리 콘텐츠 개발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삼송 주민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주민과 함께 만드는 마을 소식지 작업을 해보려 합니다. 은퇴한 시니어와 청년이 함께하는 콘텐츠 사업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후 사업에 참여할 후배 신중년 세대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요.

은퇴 전 자신의 모습에 연연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하는 새로운 일에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칫 곧바로 비치게 되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색해지고요. 우리의 경험을 과시하기보다는 더욱 겸손하고 예의 바른 자세로 임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멋지게 융합해야 사업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겠죠?

아트필

박장배

창업 지역

서울시 종로구

아트필은 은퇴한 신중년 세대를 명화해설사로 양성하고 지역의 문화센터나 노인 복지시설에 양질의 예술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명화해설사는 세계적인 미술 작품을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는 전문 강사입니다. 아트필은 은퇴 후 사회 활동 기회를 찾는 신중년 세대가 지역에서 명화해설사로 활약하도록 교육하고, 자격증 발급 체계를 갖출 계획입니다.

유명 미술관과 같은 문화 기관이 아닌 이상 질 높은 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지역의 문화 기관이나 복지 시설의 상황은 더 심각하고요. 아트필은 지역에서도 주민과 문화 소외 계층이 수준 높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신중년 세대와 함께 새로운 예술 교육 시장을 개척합니다.

창업가 박장배님은 서양화가로 활동하면서 예술과 비즈니스를 접목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018년 소셜벤처 경진대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을 수상했고, 2019년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선발된 이력이 있습니다. 서울시도심권50플러스센터 공유사무실에 입주해 창업을 준비하던 중 사업 기반 구축을 위해 점프업5060에 참여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명화해설 아카데미를 진행해 128명의 수료생을 배출했고, 2019년 명화해설 커뮤니티를 설립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도 명화해설사 교육을 이어가는 한편,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장 개척에 나서 종로구를 중심으로 명화해설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6 신중년 세대에게 지속적인 사회활동의 동력을 99

**점프업5060 참여로 얻은 가장 중요한 성과를 소개해주
세요.**

추진하려는 사업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실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한 것이 가장 중요한 성과입니다. 함께 참여한 동기분들과 사업 준비 과정을 공유하며,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을 참고해 사업에 적용해 본 것도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사업 참여 전후로 겪은 가장 큰 개인적인 변화는 무엇인
가요.**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 현실적인 가치관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점프업5060 참여나 창업으로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소개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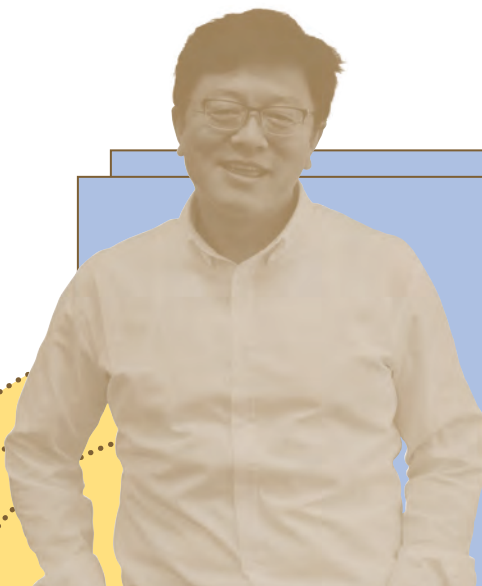
점프업5060 참여로 제가 펼치고자 하는 사업을 널리 알릴 기회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신중년 세대에게 지속적인 사회활동의 동력을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2020년 5월 현재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코로나19로 상반기에 계획했던 많은 프로그램을 보류했지만, 명화해설사 활동을 위해 커뮤니티를 만들어 45명의 회원이 꾸준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심권50플러스센터와 협업해 종로구에 산재한 작은 도서관들을 대상으로 명화해설 프로그램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후 사업에 참여할 후배 신중년 세대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요.

무엇이든 구상한 사업 아이템이 있다면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과정을 통해 방향성을 잡고,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또, 함께 점프업5060에 참여하는 동기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서로에게 든든한 힘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북촌탁구

박현정

창업 지역	서울시 종로구
<p>북촌탁구는 '마을 문체부'를 자임하는 체육·문화 공간입니다. 평소에는 탁구장으로 운영되고, 엄마들과 상인들을 위한 필라테스 프로그램과 질 높은 공연, 강연도 끊이지 않는 곳이죠. '아무연주대잔치'와 같은 재미있는 주민 참여 프로그램도 인기입니다.</p> <p>북촌이 서울의 명소로 떠오르면서 몰려드는 사람들로 주민의 피로도가 높아진 상황입니다. 주민을 위한 운동 시설과 문화 공간, 아이들이 편하게 드나들 수 있는 곳은 턱없이 부족하고요. 북촌탁구는 문화 향유와 체육 활동에 대한 주민의 욕구를 해소하는 동시에 사람들이 모이고 교류하는 동네 사랑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p>	

창업가 박현정님은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에서 50+인생학교와 문화기획 관련 과정을 수료한 뒤 문화기획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을 안에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다양한 작당과 궁리를 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경력이 단절된 동네 숨은 고수들의 활동 기회를 만들고 싶다는 꿈을 키웠죠.

2017년 북촌탁구 창업으로 꿈에 한발 다가선 뒤 마을에서 활동 반경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북촌탁구를 매개로 인연을 맺은 주민과 함께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북촌에 소재한 다른 기관과도 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그간 펼친 문화기획 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마을 잔치를 열 계획입니다.





66

북촌생활 문화센터를
만들고 싶어요.
아니, 만들 겁니다.

99

점프업5060에는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나요.

북촌에서 아담한 체육·문화 공간을 운영하면서 어느 정도 마을에서 주민 사랑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도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을 때, 사업 공고를 봤죠. 도시재생에 대해 더 알고 싶었고, 좀 더 마을 안에서 할 수 있는 역할과 북촌탁구의 사회적 가치를 고민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수익모델도 함께요.

점프업5060 참여로 얻은 가장 중요한 성과를 소개해주세요.

교육을 받기 전에는 거의 모든 것을 북촌탁구라는 공간 안에서만 펼치고 있었죠. 이제는 탁구장 밖으로 나가서 좀 더 많은 분과의 협업이 가능해졌다고 할까요? 마을 사람들과 함께 하는 즐거움에 의미를 더한 프로젝트에 대한 공리가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사업 참여 전후로 겪은 가장 큰 개인적인 변화는 무엇인가요.

이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마을의 작은 일에도 관심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끼는 계동길에서 빈 가게들이 늘는 걸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만 봤죠. 이젠 주민과 상인이 함께하는 '더불어 함께! 상생 프로젝트'를 시작해보려는 용기가 생겼어요. 불끈!

점프업5060 진행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성과공유회를 앞두고 발표 자료 작성이 서둘러 전전긍긍할 때, 저의 멘토 언더독스 김기태 코치님이 늦은 시간까지 도와주셔서 무사히 발표를 마쳤던 일이 제일 기억에 남네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이끌어주셔서 정말 감동이었답니다.

점프업5060 참여나 창업으로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소개해주세요.

북촌탁구는 문화, 운동, 배움 그리고 사람이 함께하는 공간인데요. 주민들과 함께 몸과 마음이 행복한 마을 만들기가 저의 소박한 꿈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마을 사람들이 다양하고 의미 있는 프로그램에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북촌생활문화센터를 만들어보고 싶어요. 아니, 만들 겁니다.

2020년 5월 현재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좀 더 많은 사람에게 북촌탁구를 알릴 수 있는 홍보 채널 중 하나인 종로 마을버스 광고를 디자인하고 있고요. 공연 때마다 늘 아쉬웠던 낡은 천장과 조명 장치, 음향 설비 등을 손보고 있어요. 북촌의 멋진 주민문화 공간으로 변신하기 위해 설계 중입니다. 기대해주세요.

19세기발전소

송종훈

창업 지역	서울시 은평구
<p>19세기발전소는 지역과 관련된 역사·문화 콘텐츠를 발굴해 아카이빙하고, 현대인이 흥미를 느낄 콘텐츠로 가공합니다. 이 콘텐츠가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살린 도시재생 사업의 훌륭한 자원이 되고, 지역 주민의 자부심과 공동체 의식 형성에도 도움을 주죠.</p> <p>구체적으로는 일제강점기 신문에 등장하는 특정 지역 관련 기사를 찾아 번역하고, 이를 엮어 책으로 만들거나 근대역사길을 조성합니다. 지역의 신중년 세대를 근대문화해설사로 양성하고, 청년 세대와 함께 웹툰, 시나리오 등 응용 콘텐츠도 만들 계획입니다. 2019년 11월,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었습니다.</p>	

창업가 송종훈님은 2016년 신문사에서 1920~1940년대 기사를 번역하는 아키비스트로 일하면서 근대 뉴스 번역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2017년에는 서울시50플러스 서부캠퍼스에서 커뮤니티를 결성해 근대 뉴스를 번역하는 활동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2018년 창업 이후 경기도 고양시, 양정고등학교, 의열단, 서대문형무소의 역사를 발굴해 자료로 엮어냈습니다. 이제 전국 곳곳의 시군, 공공기관,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장소와 인물을 주제로 근대 역사를 발굴하는 작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66

일의 외연을
넓힐 안목이 생겼죠

99



점프업5060 참여로 얻은 가장 중요한 성과를 소개해주세요요.

교육을 통해 현재 하는 사업의 문제점이나 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교감하면서 사업 목표를 재정립할 수 있었고, 새로운 분야에 관심을 가질 수 있었던 것도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 참여 전후로 겪은 가장 큰 개인적인 변화는 무엇인가요.

하는 일의 외연을 넓힐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예요, 앞으로도 변함없이 근대 기록물이 지역 재생을 위한 밑거름이 되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확고해진 점도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점프업5060 참여나 창업으로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소개해주세요요.

100년도 채 지나지 않은 근대 역사를 젊은 세대가 거의 알지 못하죠. 신중년 세대는 젊은 세대와 비교해 지난 역사를 잘 알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지역이나 인물과 관련된 근대 역사를 찾아 기록으로 남겨 꼭 후대에 전하는 것이 남은 인생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2020년 5월 현재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근대 뉴스 중심의 홈페이지 메뉴를 어떻게 구성할지 많은 분의 조언을 듣고 있어요.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을 완료하면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책자도 만들어 홍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후 사업에 참여할 후배 신중년 세대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요.

확실하고 선한 뜻을 갖고 도전하면, 다소 힘들어도 언젠가는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동감

안인선

창업 지역

서울시 성북구

동감은 특별한 취미 생활을 원하는 지역 주민이 명인에게 기술과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취미 공유 카페입니다. 디지털 문화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아날로그 감성을 찾는 뉴트로(newtro) 세대 이삼십대 직장인이 주 고객층입니다. 낮에는 식음료를, 해가 지면 경험을 판매합니다. 수제 막걸리, 진공관 오디오, 백패킹 여행 등 다양한 분야의 명인이 진행하는 수준 높은 클래스로 뉴트로 세대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동감이 자리 잡을 곳은 성북구 북정마을입니다. 서울성곽을 품은 고즈넉한 동네로 탐방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지만, 오랫동안 개발이 지체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주민이 쉼 공간과 문화 공간도 부족하고요. 동감은 북정마을의 풍경 속에 자연스레 녹아들면서도, 주민에게 특별한 문화 경험을 선사해 조용히 마을의 변화를 꾀합니다.

창업가 안인선님은 오랜 기간 식음료 업계에 몸담았습니다. 퇴사 후 서울대입구역 인근에서 테마 카페를 성공적으로 운영했고, 창업 경진대회 수상 경력도 있습니다. 식음료 관련 자격증 취득, 창업 교육 수강 등 역량 개발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창업가입니다.

카페를 운영하면서 직접 젠트리피케이션을 경험했고, 바람직한 도시재생의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됐습니다. 서울, 양양, 여주, 화순에서 다양한 도시재생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제안하면서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을 주제로 유튜브 활동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66

여성 창업의 워너비 모델이 되었습니다

99

점프업5060 참여로 얻은 가장 중요한 성과를 소개해주세요.

강연을 듣고 실습을 하면서 많은 분의 깊이 있는 삶의 철학을 접할 수 있었어요. 언더독스 김정현 대표를 만나서 스타트업의 현실과 여성 창업자의 어려움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얘기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창업 예정자인 성북동에서 설문조사를 할 때 외지인으로서 지역 주민과의 소통에 매우 큰 어려움을 겪었죠. 이겨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는데, 이를 극복해야 도시재생에 첫발을 내디딜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망원동의 미술 카페에서 제 창업 아이템인 '명인과 함께하는 막걸리 체험 콘텐츠'를 시연했는데, 아이템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창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질 수 있었습니다.

사업 참여 전후로 겪은 가장 큰 개인적인 변화는 무엇인가요.

창업을 생각하면 돈의 가치만을 떠올렸죠. 점프업 5060 참여 과정에서 도시재생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며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창업의 사회적 가치를 더 중시하게 되었고, 지역을 돌아다니며 지역민을 우선시하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창업 기획부터 실행 단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생각을 하며, 저 자신을 더 성장시키고 창업에 성공해 큰 변화를 불러오고 싶다는 마음도 같이 커졌습니다.

점프업5060 진행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처음에 해외탐방 일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도시재생 관련 해외 사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가평에서 트레이닝캠프에 참가했을 때부터 가방에 여권을 지니고 다녔죠. 그렇게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점프업5060 참여나 창업으로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소개해주세요.

1. 여성 창업의 워너비 모델이 되는 것
2. 로컬푸드 자원화로 가치 재창출
3. 식음료·외식업 분야 새로운 트렌드와 해외시장 개척
4. 도시재생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민과 함께 지역을 활성화하는 것
5. 도시민에게 한 줄기 빛이 되는 공간을 만드는 것

이후 사업에 참여할 후배 신중년 세대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요.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행하세요. 창업,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에프하임

양해경

창업 지역	서울시 종로구
<p>에프하임은 벽면 녹화 기술을 활용해 삭막한 환경에 둘러싸인 도시민에게 자연 친화 공간을 선사하고, 녹색 도시재생 전략을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건물 실내외 벽면에 식물을 재배해 조성하는 그린월은 공기 질 개선 등의 효과를 주고 시각적으로도 청량감을 선사합니다. 에프하임은 도심 공간에 그린월을 조성해 지역의 랜드마크를 만드는 한편, 그린힐링, 그린테라피와 같은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골목 상권을 활성화합니다.</p> <p>에프하임이 첫 번째 사업 지역으로 주목한 곳은 종로구 서촌입니다. 몇 년 새 빠르게 떠올랐다 정체를 맞고 있는 상권입니다. 창업가의 분석에 따르면 먹거리 위주의 단조로운 점포 구성, 랜드마크의 부재 등으로 지역 방문객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에프하임은 서촌 지역 건물 내·외벽에 그린월을 설치해 서촌 지역 상권의 새로운 차별화 요소를 제공합니다.</p>	

창업가 양해경님은 오랜 시간 전업주부로 지내다 인생 후반의 새로운 커리어 개척을 위해 점프업5060에 참여했습니다. 벽면 녹화, 스마트팜, 수직 재배에 관심을 가져왔고, 이를 사업 아이템으로 발전시켜 에프하임의 사업 모델을 구상했습니다.

지인이 운영하는 카페가 서촌에 있어 매출 감소 등의 문제를 함께 논의하면서 자연스럽게 서촌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서촌 지역 카페를 그린월 테스트베드로 삼아 사업을 시작하고, 교육 콘텐츠 개발과 지역 전문가와의 협업 체계 구축으로 조금씩 서촌 지역을 도심 속 그린 존으로 바꿔 가려 합니다.



66

잊고 있던 학구열이 되살아났어요

99

점프업5060 참여로 얻은 가장 중요한 성과를 소개해주세요요.

창업에 문외한이었던 제가 훌륭한 강사진 덕분에 매시간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항상 진지하게 진행됐던 사업 모델 구체화를 위한 교육과 토론이 유익했고, 현장실습도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사업 참여 전후로 겪은 가장 큰 개인적인 변화는 무엇인가요.

도시재생을 공부하면서 제가 사는 지역을 다시 보게 되었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 마을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오랫동안 가정주부로 살면서 잊고 있었던 학구열이 되살아났고, 함께 사업에 참여한 선생님들의 열정과 진지함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점프업5060 진행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무엇보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함께 공부한 선생님들의 열정이었습니다. 그동안 사회 각 분야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사셨던 선생님들 한 분 한 분께서 들려주셨던 삶의 연륜과 관록이 묻어나는 명언들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또, 저희가 잘 할 수 있도록 늘 조용히 도와주셨던 프로그램 관계자 선생님들이 계셔서 든든했습니다.

점프업5060 참여나 창업으로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소개해주세요요.

인생 후반의 커리어 개척이 가장 큰 목표였어요. 물론 생계를 위한 수익 창출도 중요하지요. 저희가 공부한 분야가 도시재생이기 때문에 창업으로 공공의 이익에도 기여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5월 현재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특정 장소에 그린월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인데,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지금까지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잠시 멈춰있지만 앞으로 배운 것을 토대로 꿈을 펼칠 시간이 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고성회관

염기명

창업 지역

강원도 고성군

고성회관은 청년 창업가가 지역 특산물을 활용해 외식 창업에 도전할 기회를 선사하는 지역 식음료 비즈니스 플랫폼입니다. 지자체 유휴 공간을 이용해 청년 창업가에게 메뉴 개발 공간을 지원하고, 경쟁력을 검증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주민, 관광객 대상 쿠킹 클래스를 열어 음식을 매개로 교류하는 지역 커뮤니티의 장을 마련합니다.

고성군은 이웃한 속초시와 비교해 관광 인프라가 열악하며 관광객이 찾는 식당과 지역 메뉴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고성회관은 지역 먹거리 콘텐츠를 개발하고 전파하는 플랫폼으로서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군청, 마을협의회, 대학 등 다양한 지역 주체와 협력해 탄탄한 지역 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창업가 염기명님은 시나리오 작가로 활동하다 건강 문제로 잠시 휴식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건강을 회복할 즈음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접했고, 도시 개발의 관건은 하드웨어가 아닌 콘텐츠라는 신념을 갖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코디네이터 교육을 수료한 뒤 2018년 도시재생 스타트업(주)오리진을 창업했습니다.

유휴 공간 재생사업, 마을벽화 사업, 청년마을 조성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지역 업체의 브랜딩과 마케팅을 돕는 작업도 병행합니다. 청년포차 푸드 트럭 사업, 도시청년 한 달 살기 프로젝트 등 고성군과 함께 청년 세대를 위한 창업 친화 기반을 마련하는 작업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66

중장년층도 무엇이든 할 수 있죠

99

점프업5060 참여로 얻은 가장 중요한 성과를 소개해주세요.

처음에는 원데이 쿠킹 클래스 프로그램으로 점프업 5060에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받으면서 쿠킹 클래스의 사회적 가치를 인식하게 되었어요. 좀 더 구체적인 사업으로 발전시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청년외식창업가센터인 고성회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사업을 계획할 때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가 어려웠는데, 교육으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생각을 정립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 참여 전후로 겪은 가장 큰 개인적인 변화는 무엇인가요.

1인 기업의 한계를 느끼고,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전문 인력 확보에 나서 디자인 전문 업체 '블루웨이', 동영상 전문 업체 '오리지널 무브먼트', 지역 농수산물 유통 플랫폼 'Eat Local'을 세웠습니다. 법인도 속초에서 고성으로 이전해 고성 지역의 유일한 콘텐츠 제작사, 디자인 전문회사이자 도시재생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점프업5060 참여나 창업으로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소개해주세요.

중장년층도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굳은 신념을 증명하고 싶어요.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는 청년의 패기, 열정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의 경험과 사회적 네트워크가 함께해야 합니다. 중장년층의 지원 사업 참여 기회가

청년층 못지않게 확대되고, 세대 간 협업을 유도하는 방향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5월 현재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Eat Local을 통해 세 종류의 상품을 출시했고, 고성회관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성 DMZ 크리스마스 페스티벌에 이어 고성군 로컬 제품 디자인 개선행사에 참여하고 있고, 봉포 청년상상마당 오픈 행사와 후속 프로그램의 전체 진행을 맡을 예정입니다.

이후 사업에 참여할 후배 신중년 세대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요.

점프업5060 참여를 무조건 권장합니다. 단지 인생의 1막만 끝났을 뿐이에요. 새로운 2막을 위해 결의를 다지고, 사회를 위한 책임감과 20대의 열정으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광명 공유부엌

윤선영

창업 지역	경기도 광명시
<p>광명 공유부엌은 생일 파티부터 마을 소모임에 이르기까지, 모임 공간이 필요한 주민 누구나 자기 집 거실처럼 편하게 음식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지역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 저렴한 가격에 주민들에게 공간을 제공하고,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합니다.</p> <p>광명시 철산동은 주민들이 모여서 함께 시간을 보낼 공간이 많지 않은 곳입니다. 공공시설은 이용 시간 등의 제약이 있고, 식당이나 카페는 비용 부담이 있죠. 광명 공유부엌은 주민들이 예약만 하면, 집 근처에서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모임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주민 커뮤니티 성장의 기반을 마련합니다.</p>	

창업가 윤선영님은 오랜 기간 통장,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고 마을공동체 사업에도 참여하는 등 지역과 마을 일에 깊은 애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유사 사업 사례를 접하고, 지금 사는 마을에도 이런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공유부엌 사업 아이템을 구상했습니다.

윤선영님은 주민이 모일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이 지역공동체에 무척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만나서 알아가야 지역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또한, 도시재생과 같은 사업을 주민이 주도하기 위해선 학습과 토론이 필요한데, 이러한 공간에서 적절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민의 성장을 도울 수 있습니다.





66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자신감과 용기

99

점프업5060 참여로 얻은 가장 중요한 성과를 소개해주세요.

현장실습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직접 현장에서 체험하면서 공유부역 운영에 필요한 기술과 다양한 업무 항목을 알게 되었어요.

사업 참여 전후로 겪은 가장 큰 개인적인 변화는 무엇인가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자신감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도 점프업5060에 참여해 사업을 잘해나가기 위해 준비하고 서로 응원하는 모습이 매우 좋아 보였습니다. 교육을 받기 위해 전국에서 모인 분들이 너무 대단하다고 느꼈죠.

점프업5060 진행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성과공유회를 마치고 구로디지털단지역 근처 지하 공간에서 참여자들과 함께 색소폰을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춤도 쳤죠. 마지막에 서로 안아주고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자고 다짐하던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평소에는 근엄하게 앉아서 수업만 듣다가 긴장을 풀고 마음껏 놀면서 참 신나고 재미있었습니다.

점프업5060 참여나 창업으로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소개해주세요.

인생 후반 커리어 개척과 사회 공헌을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공유부역처럼 수다 떨고, 밥도 먹고, 부업 활동도 할 수 있는 휴식 같은 공간에서 마을 사람들과 재미있게 놀고 싶습니다.

2020년 5월 현재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코로나19로 인해 지금까지 준비한 사항은 바닥 장판을 깔고 화장실 공사를 한 게 다입니다. 모임을 열거나 수업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천천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SWOT 분석도 받고 싶습니다.

이후 사업에 참여할 후배 신중년 세대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요.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긴다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펫빌리지

이경미

창업 지역	경기도 고양시
홈페이지	petvillage.modoo.at
카페	cafe.naver.com/seniorpetcare

펫빌리지는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마을을 꿈꾸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지역 커뮤니티를 조직해 회원끼리 반려동물 공동 돌봄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회원들이 반려동물을 전문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펫티터 교육을 시행하고, 회원들은 서로에게 자신의 반려동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이웃이 됩니다. 특히,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니어 세대를 주요 회원층으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곳은 30만 반려 인구가 사는 고양시, 그중에서도 덕양구입니다. 고양시에서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곳이며, 2019년 도시재생 사업 대상지로 지정된 지역이죠. 펫빌리지는 동물을 매개로 세대 간, 주민 간 관계 형성을 촉진하고, 시니어 세대가 반려동물과 건강한 삶을 꾸려가도록 돕습니다.

창업가 이경미 님은 서울시50플러스 서부캠퍼스에서 공동체주거 관련 강의를 들은 뒤,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마을 만들기를 위해 펫빌리지를 설립했습니다. 펫빌리지 활동을 토대로 평소 구상해 온 시니어 세대와 반려동물을 연결하는 활동을 사업화하고자 점프업5060에 참여했습니다.

플랫폼 구축을 골자로 하는 일인 만큼 이경미 님은 여러 방향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신중년 세대를 펫티터로 양성해 3조 원 반려동물 시장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커뮤니티 활동을 기반으로 반려동물용품 쇼핑물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갑니다. 또, 반려동물 커뮤니티를 향후 협동조합으로 발전시켜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66

다양한 생명체와 공존하는 세계를

99



점프업5060 참여로 얻은 가장 중요한 성과를 소개해주세요요.

장시간 교육을 받으며 사업 모델을 구체화한 것과 단계별 실행 계획을 수립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업 단계별로 모르고 지나칠 수 있었던 부분을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죠. 한 페이지로 사업계획을 정리하고, 5분간 사업을 발표하는 자리를 가진 것도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점프업5060 진행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군산 현장탐방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개화기 문화체험이 인상적이었고, 동기분들과 대나무 숲에서 정말 오랜만에 아이처럼 놀았던 것도 좋은 추억입니다.

점프업5060 참여나 창업으로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소개해주세요요.

코로나19는 인간 위주의 삶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알려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도시화는 인간에게 편리함을 주지만, 다른 생명체에게는 매우 불편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생명체가 주변에서 흔히 보는 개와 고양이가 아닐까요? 신중년 세대가 주축이 되어 다양한 생명체와 공존하는 세계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2020년 5월 현재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고양시 능곡동 도시재생 사업으로 '야옹명명 함께 가는 토당사진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상인, 청소년, 청년들과 함께 능곡 전통시장 안에 있는 빈집을 사진관으로 꾸며서 8월에 반려동물과 함께 찍는 가족사진관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10월에는 능곡시장 축제에서 토당사진관 프로젝트 사진 전시회 겸 동영상 상영회를 엽니다. 어설프지만 홈페이지도 직접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어요.

이후 사업에 참여할 후배 신중년 세대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요.

교육 시간이 길어서 버거웠지만, 그만큼 얻는 것이 많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배움이 더 많습니다. 다양한 삶의 노하우를 지닌 신중년 세대의 시너지 효과를 경험하실 겁니다. 교육과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풍요로운 인생 후반기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부산동구마을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이인환

창업 지역	부산시 동구
홈페이지	www.house1119.net
<p>부산동구마을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은 도시재생 사업 과정에서 형성된 주민공동체의 연합 단체로, 집수리 업체와 기술자 정보를 한곳에 모아 수요자와 연결하는 '마을관리·집수리 콜센터' 사업을 추진합니다. 콜센터 등록 업체는 공동 마케팅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요자는 편리하게 검증된 업체를 찾아 집수리를 맡기죠.</p> <p>부산의 원도심 지역은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고령층 인구 비율이 높습니다. 수리할 집은 많지만 비용 문제로 방치하는 주민이 많고, 업체들은 시장성이 없는 곳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기도 쉽지 않죠. 마을관리·집수리 콜센터는 원도심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지역의 영세 집수리 업체에 일할 기회를 제공합니다.</p>	

창업가 이인환님은 다년간 개인 사업을 운영했고,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지냈습니다. 도시재생 주민협의회와 동구민간협의회 회장으로 마을 일을 도맡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부산 동구에 살면서 지역이 쇠퇴해 가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지역을 다시 살리기 위해 이웃과 뜻을 모았고, 2018년 부산동구마을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에 나섰습니다.

마을관리·집수리 콜센터 사업에도 집수리 전문가인 지역 주민이 대거 참여해 힘을 보탬니다. 2020년 상반기에 오프라인 현장 사무실을 마련한 뒤, 다양한 주민공동체와 협업을 통한 콜센터 사업을 홍보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인환님은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구축한 뒤에는 집수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경제 관련 서비스로도 사업 영역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부산동구마을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이인환



66
지금,
바로 지금
시작하십시오
99

점프업5060에는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나요.

2018년 5월에 법인 등록을 한 뒤, 2019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지원해 선정되는 등 체계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도시재생 창업 관련 프로그램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부족한 부분을 더 채우기 위해 참여했습니다.

점프업5060 참여로 얻은 가장 중요한 성과를 소개해주세요.

언더독스의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창업 교육은 다른 곳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창업의 실패 확률을 줄이는 법을 알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마을관리·집수리 콜센터를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시켜야 할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업 참여 전후로 겪은 가장 큰 개인적인 변화는 무엇인가요.

2019년 12월 조합이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었고, 조합의 활동이 성공 사례로 알려져 강의 요청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SE 코디네이터 전문위원으로도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점프업5060 참여나 창업으로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소개해주세요.

마을관리·집수리 콜센터를 향후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기 위해 직영 집수리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노후 주택과 열악한 생활환경을 개선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 갑니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 공헌 사업도 꾸준히 진행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청년과 신중년 세대의 일자리 창출도 추진해 사회적경제 주체로서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2020년 5월 현재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점프업5060에서 지원한 사업비로 현장 사무소 인테리어 공사를 마쳤습니다. 현재 두 명의 직원이 함께 사업을 꾸려가고 있는데, 실무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후 사업에 참여할 후배 신중년 세대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요.

지금, 바로 지금 시작하십시오. 시작이 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조금 더 일찍 참여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도전하면 반드시 맞는 길을 찾으리라 확신합니다.

북살롱 와일드북스

이정민

창업 지역	서울시 서초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wildbooks.friends
<p>북살롱 와일드북스는 동네 주민들이 함께 책을 읽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다양한 모임을 열 수 있는 책방 겸 북클럽 공간입니다. 특히, 영어 학습에 대한 열의가 크지만, 마땅한 학습처를 찾지 못하는 신중년 세대가 영어 그림책 토론 수업으로 쉽고 재미있게 영어를 배우도록 합니다. 독서 모임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민 모임을 위해 공간을 제공하고요.</p> <p>와일드북스는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 문을 열 계획입니다. 공동체 의식이 두텁지 않은 곳입니다. 주민들이 책을 매개로 한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경험이 쌓인다면, 조금씩 마음의 벽을 허물 수 있을 것입니다.</p>	

창업가 이정민님은 응용언어학 박사학위 취득 후 오랜 기간 대학에서 강의해 온 영어 교육 전문가입니다. 2019년에는 영등포50플러스센터에서 영어 그림책 강의를 진행해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서초구립반포도서관, 영등포50플러스센터에서 영어 그림책 커뮤니티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정민님은 함께 책을 읽는 경험이 공동체 의식 형성에 기여해 개인주의적이고 폐쇄적인 아파트의 문화를 바꿔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처음에는 신중년 세대를 중심으로 북클럽 활동을 시작하지만, 이들의 자녀나 손자녀로 회원층을 확대해 청소년과 어린이도 편하게 찾을 수 있는 아늑한 동네 책방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66

혼자서는 꿈도 못 꿔을 창업

99

점프업5060에는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나요.

창업에 대한 막연한 로망이 있었는데, 실천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죠. 재단 홈페이지에 올라온 광고를 보고 가슴이 쿵쾅 뛰더라고요. '50세가 넘어서 완전히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용기를 내 지원했습니다.

점프업5060 참여로 얻은 가장 중요한 성과를 소개해주세요.

점프업5060 교육은 사업계획을 세우는 데 어려움을 겪던 제게 창업의 ABC를 알려준 고마운 프로그램입니다. 현장에 나가 실제로 일해보고, 설문조사와 인터뷰로 타깃 고객층을 만나본 경험과 코치님들께 일대일로 받은 코칭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업 참여 전후로 겪은 가장 큰 개인적인 변화는 무엇인가요.

혼자서는 꿈도 꾸지 못했을 창업의 꿈을 이루면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50대 초반에 들어서면서 여러 신체적·심리적 변화를 겪으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동년배들과 어울리며 저도 변해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점프업5060 진행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성과공유회 발표를 위해 사업계획서를 고치고, 자료를 만들고, 발표 연습을 수없이 했던 기억이 잊히지 않습니다. 언더독스 김민경 코치는 발표 자료 디자인을 멋지게 다듬어 주었고, 김기태 코치와 유연성 코치는 발표 자료를 완성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끈기 있게 독려해 주었습니다.

점프업5060 참여나 창업으로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소개해주세요.

책방과 북클럽 사업으로 책 읽는 문화를 전파해 좀 더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고 싶습니다. 모여서 읽고, 읽은 후 말과 글로 표현하면 책 읽기는 사회적 활동이 됩니다. 함께 책 읽는 문화로 개인과 공동체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아주 작은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2020년 5월 현재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책방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고, 곧 사업자 등록을 할 예정입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책을 추천하는 계정(@wildbooks201)을 1년간 운영해 왔는데, 컨설팅을 받은 후 사업 계정(@wildbooks.friends)을 따로 만들어 마케팅에 활용할 예정이에요. 도서 출판 업체와 출판사로부터 책을 받고, 온라인 마케팅과 온라인 스토어 개설을 거쳐 책 판매도 시작합니다.

영플러스

이향연

김원식

창업 지역

서울시 금천구

영 플러스는 높은 임대료와 자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창업가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사무·주거 공간을 임대하고,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복합 공유공간입니다. 한 건물에 일과 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이 모두 완비된 곳에서 청년들은 함께 창업을 준비하고, 마케팅·회계·법무 등 분야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성장합니다.

영 플러스가 위치할 곳은 금천구 독산동의 우시장 도시재생 사업 지역입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낙후 지역 중 한 곳이지만, 가산 디지털단지와 가깝고 신안산선 개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영 플러스는 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카페 공간을 만들어 입주 청년과 주민의 교류를 유도하고, 청년 창업가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이들이 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합니다.

창업가 이향연, 김원식님은 공동의 관심사를 토대로 인생 후반기에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부부 창업가입니다. 경제학과 디자인을 전공한 이향연님은 도시의 변화하는 모습에 관심을 두고 꾸준한 도시재생을 공부해 왔습니다. 김원식님은 오랜 기간의 직장생활을 마무리한 뒤 새로운 인생 경로를 고민하고 있었어요.

두 창업가가 함께 관심 가진 문제는 청년 실업입니다. 두 자녀를 둔 부모로서 문제의 심각성에 깊이 공감했고, 기성세대의 책임감도 느꼈죠. 청년들을 위한 작은 사회 안전망을 마련하고 싶다는 바람을 안고 영플러스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두 분은 현재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사업 제안 등 사업 착수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66

아이디어와 열정, 긍정 마인드만 있으면

99

점프업5060 참여로 얻은 가장 중요한 성과를 소개해주세요.

현장실습이 가장 큰 도움이 됐습니다. 막연한 사업 아이디어들이 현장에서 실현되고 있고, 더욱 발전해가고 있음을 느꼈어요. 예상하지 못했던 각종 법적 문제와 제한 조건도 알게 되었고요. 시장에 존재하는 다양한 비즈니스 구조와 서비스 영역을 직접 체험하고, 최종적으로 사업 영역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컨설팅은 사업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에 방황할 때, 사업 방향성과 목표를 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업 참여 전후로 겪은 가장 큰 개인적인 변화는 무엇인가요.

50 이후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다양한 방법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점프업5060 동기분들의 활동을 보면서 자극을 받았어요. 새로운 아이디어와 열정, 긍정적인 마인드만 있으면 나이, 지역과 관계없이 신중년의 자긍심과 목적의식을 갖고 생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죠.

점프업5060 진행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현장실습 과정에서 방문한 불광동 향림마을 도시재생 현장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특정 건물이나 단지가 사업 대상이 아니라, 마을 전체를 재생하는 큰 프로젝트였죠. 마을 사람들의 공동 참여 활동, 다양한 재생 계획, 단계적 실행에 따른 실질적인 변화를 지켜보며 마

술에 대한 고정관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에도 이런 독창적이고 아름다운 마을이 있구나 자랑스럽기도 했고요.

점프업5060 참여나 창업으로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소개해주세요.

기성세대로서 '청년은 우리의 미래'라는 시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 아들과 같은 청년들이 사회에 잘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하면 좋겠어요. 단순히 저렴한 주거 환경이나 알바 일자리보다는, 장기적으로 꿈을 키우고 실현하도록 하는 창업 지원책을 제공해 청년 세대가 사회의 주축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이후 사업에 참여할 후배 신중년 세대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요.

50대, 60대에도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신중년들을 만났어요. 각자 개성도 강하고 사업 분야도 다양해서 공통점은 많지 않았지만,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는 공통점이 교육이 끝나도 함께 모일 수 있는 동력입니다. 함께하면서 심리적으로 큰 도움을 받았고 다양한 정보를 공유했죠. 지금도 만나는 지인들에게 점프업5060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노마드 여행 카페

임성호

원라미

창업 지역

서울시 도봉구

노마드 여행 카페는 신중년 세대가 자유여행을 떠나도록 돕고, 서로 여행 경험을 공유해 또 다른 여행을 꿈꾸도록 하는 플랫폼입니다. 먼저 신중년 세대를 대상으로 자유여행의 ABC를 알려주는 교육을 진행합니다. 교육생은 직접 여행을 기획하고, 마음이 맞는 동료와 커뮤니티를 이뤄 여행을 떠나죠. 여정을 마친 뒤에는 사진과 정보 등을 공유해 누군가의 다음 여행을 위한 자산을 함께 축적해 갑니다.

노마드 여행 카페가 문을 열 곳은 도봉구 방학천 문화예술거리입니다. 원래 유흥업소 밀집 지역이었지만, 도시재생 사업을 거쳐 현재는 여러 공방이 자리 잡은 곳입니다. 노마드 여행 카페는 좀 더 많은 사람이 이 거리를 찾도록, 여행 관련 교육과 문화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신중년 세대의 네트워크를 확장해 가고자 합니다.

창업가 임성호, 원라미 님은 50+인생학교를 함께 수료한 인연으로 팀을 이뤄 창업에 나섰습니다. 임성호 님은 몽골,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20여 년간 사회 공헌 사업을 수행했고, 다수의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한 경력이 있습니다. 원라미 님은 50+시민기자단, 마을기록가로 활동하며 자신과 주변의 일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작업을 이어왔습니다.

두 창업가는 50+인생학교 수강 등을 계기로 신중년 세대의 사회적 책임감을 깊이 인식했고, 창업으로 웃음이 넘치는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싶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이러한 비전을 함께 추구하는 50+인생학교 동료들의 전문 역량과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66

수요자 분석과 검증의 중요성을 인식했습니다

99

점프업5060 참여로 얻은 가장 중요한 성과를 소개해주세요.

막연하게 알던 도시재생에 대해 심층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공부하는 계기가 되었죠. 초기에는 사업계획이 두루뭉술했는데, 교육을 받으며 목표를 재설정하고 사업 범위를 구체화하면서 사업에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특히 수요자 분석과 검증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했습니다. 분석과 검증 기법을 직접 적용해본 것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니다.

사업 참여 전후로 겪은 가장 큰 개인적인 변화는 무엇인가요.

도시재생 현장에서 공방 사업자분들을 만나 삶의 지혜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작은 규모의 사업이지만,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가는 모습에 감동했어요. 비록 적은 소득일지라도 만족하며 꾸준히 정진하는 모습이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는 저희에게 큰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점프업5060 참여나 창업으로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소개해주세요.

50+인생학교 심화과정 졸업 이후 동기들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한다는 목표를 세웠고, 이를 위해 점프업5060에 참여했습니다.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지역의 도시재생 사업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커뮤니티 활성화가 중요하고, 누군가의 선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창업으로 이러한 역할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2020년 5월 현재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원래 인문 강자 중심의 복합 문화 공간 운영으로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교육 등을 거치면서 노마드 여행 프로그램으로 사업 범위를 조정했어요. 꼭 독자적인 공간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 다른 커뮤니티의 공간을 활용해 진행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여행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시작해 6월 중순에는 외국으로 출발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취소했습니다. 상황이 좀 나아지면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후 사업에 참여할 후배 신중년 세대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요.

도시재생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꼭 점프업5060 도전을 권하고 싶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도시재생에 대한 기본 개념을 모르고서는 도시 발전을 추구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창업 의지가 확고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진 분이 점프업5060에 합류한다면 더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니플리마켓

전순희

창업 지역	대전시 유성구
<p>수니플리마켓은 지역의 수공예품 판매자가 임대료 부담 없이 소비자를 만날 수 있는 지역 특화 시장입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숨은 고수, 평생교육원 등에서 실력을 쌓은 뒤 판매에 도전하고 싶은 수공예 창업 희망자에게 판로를 제공합니다. 물건만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으로 축제의 장을 만들어 지역을 대표하는 행사로 자리매김합니다.</p> <p>초기 사업 지역으로 구상한 곳은 대전시 유성구입니다. 유성 온천 덕에 서비스업·관광업이 성행한 곳이지만, 현재는 상권이 쇠락하고 활기를 잃었습니다. 수니플리마켓은 온천 지구라는 지역 특색을 살려 개성 있는 지역 핸드메이드 제품을 발굴하고, 문화 콘텐츠를 결합해 사람들의 발길을 다시 끌어들이고자 합니다. 유성구뿐만 아니라 지역 활성화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수니플리마켓이 찾아갑니다.</p>	

창업가 전순희님은 대전시 유성구에서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역 상권 활성화와 슬럼화 방지에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많은 주민을 만나 애로사항을 들으며 지역이 겪는 어려움을 체감했습니다. 수니플리마켓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주민 모두의 힘이 필요합니다. 전순희님은 주민자치위원의 지위와 경험을 활용해 양측의 입장을 잘 헤아려 사업을 추진해 가고자 합니다.

2019년 1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파주 지역에서 첫 수니플리마켓을 열었고, 같은 지역에서 책 플리마켓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유성구에서 두 번째 수니플리마켓을 열 계획입니다. 수공예품과 지역 농산물로 풍성한 시장을 차리고, 지역 대학생과의 협업도 추진합니다.





수니플리마켓
전순희

66 자신의 용기를 테스트할 수 있는 마켓 99

점프업5060 참여로 얻은 가장 중요한 성과를 소개해주세요.

언더독스의 젊은 코치진과의 교류는 신선한 자극을 주었습니다. 멘토링에서 지적받은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요. 부족한 부분은 현재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점프업5060 진행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동기분들과 '목요 만행(만 원의 행복)'이라는 이벤트를 가졌어요. 조재천 동기회 회장님께서 마음을 많이 내어 주셨죠. '아직 내 줄 것이 많은 우리'라는 메시지를 알려 주신 것 같아요.

점프업5060 참여나 창업으로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소개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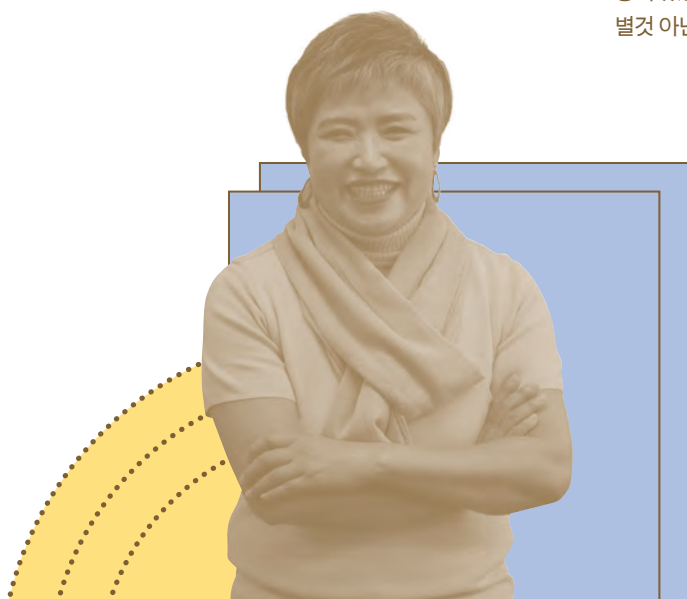
조금은 약자인 사람들에게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고 싶습니다. 무엇이든 갖고 나올 수 있는 수니플리마켓은 자신의 용기를 테스트할 수 있는 곳이에요. 창업 활동의 첫발을 내디딜 수 있는 공간이고요. 사람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시장입니다. 건강한 희망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2020년 5월 현재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파주에서 플리마켓을 운영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때를 기다리면서 다음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후 사업에 참여할 후배 신중년 세대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요.

용기 있는 자만이 누릴 권한이 있습니다. 도전하세요. 별것 아닌 것이 세상을 바꿉니다.



마켓발견

조소연

창업 지역	경기도 의왕시
홈페이지	marketbalgyun.com
블로그	blog.naver.com/marketbalgyun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marketbalgyun

마켓발견은 사람과 물건의 숨은 가치를 발견해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지역 플랫폼입니다. 지역주민의 중고 물건, 핸드메이드 제품,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빈티지 제품 등을 판매하는 매장을 운영하며 업사이클링 교육을 진행합니다. 주민을 강사로 양성하고, 주민이 물품을 기부하면 포인트를 발급해 마켓발견의 공간을 대여하거나 강의료를 들을 수 있도록 하죠.

마켓발견이 위치한 의왕시는 리사이클 매장은 물론, 신중년 세대를 위한 문화 공간도 찾기 어려운 곳입니다. 지역의 신중년 세대가 재능 개발을 위한 강의를 듣거나 모임을 열어 미래를 설계하도록 돕는 일도 마켓발견의 중요한 미션입니다.

창업가 조소연님은 직장 생활을 정리하고 2016년 유럽으로 떠나 1년여간 덴마크 시민학교에 재학하고 배낭여행을 다니며 견문을 넓혔습니다. 유럽의 다양한 도시재생 사례를 살피고 벼룩시장을 접하며 인생 후반 항로를 설계했습니다.

이전에도 유럽과 미국에서 생활하며 다양한 중고물품 시장을 경험했던 터라,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기회 자원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2018년 마켓발견을 창업했습니다. 차근차근 내실을 다져오던 중 사업 확장을 위해 점프업5060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66

고정관념은 쓰레기통에 매일 버리세요

99

점프업5060 참여로 얻은 가장 중요한 성과를 소개해주세요.

고도화 컨설팅은 마켓발견이 당면한 현안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해결해가는 지표가 되었습니다. 업사이클링 강사 양성 교육 전문가와 같이 꼭 필요했던 분에게 컨설팅을 받도록 연결해 주셔서 좋았어요. 현장실습 과정에서 다른 회사의 협업 톨 활용방식을 살펴보니 마켓발견과 많이 달라서 좋은 참고처가 되었습니다.

사업 참여 전후로 겪은 가장 큰 개인적인 변화는 무엇인가요.

오십이라는 나이에 대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나이'로 바라보게 된 관점의 변화를 겪었습니다. 또한, 어떻게 해야 더 잘 들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더 청년들에게 배울 수 있을지 구체적인 고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점프업5060 참여와 창업으로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소개해주세요.

물건의 리사이클링과 업사이클링을 통해 사람까지 업사이클 되도록 하는 것이 마켓발견의 미션입니다. 마켓발견으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재화와 서비스, 가치를 창출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려고 해요. 나와 내 주변 사람,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행복도 또한 더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2020년 5월 현재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코로나19 사태로 마켓발견 클래스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집안의 망가진 물건으로 액세서리를 만드는 과정으로 클래스를 재개합니다. 마켓발견에서 창업 연습을 해볼 수 있는 블로그 만들기 클래스도 진행합니다. 9월 초부터는 업사이클 강사 양성과정을 시작합니다. 강사 파견 요청이 많아 참여자분들께 다양한 기회가 주어질 듯합니다. 매장 조명을 밝게 보완하는 작업, 전체 미디어 채널을 점검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장 앞에 에어간판을 세웠고, 현수막도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이후 사업에 참여할 후배 신중년 세대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요.

어떠한 도전이라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접근한다면, 결과와 무관하게 멋진 경험이 됩니다. 선한 꿈을 꾸시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꼭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단, 고정관념은 쓰레기통에 매일 버려야 합니다! 요놈이 버렸다고 생각해도 매일 꿈틀대거든요.

종로선글TV

조재천

창업 지역	서울시 종로구
유튜브	종로선글TV
<p>종로선글TV는 세운상가를 알리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질문이 세상을 바꾼다’라는 슬로건 아래 세운상가와 관련된 다양한 스토리를 전달해 세운상가 활성화를 추구합니다. 토크쇼와 같은 구독자 참여 프로그램으로 세운상가에 대한 관심을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채널 개설 후 10일 만에 천 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할 정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p> <p>이미 세운상가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더 많은 상가 방문객과 상인들의 수익 증대가 필요합니다. 종로선글TV는 가격, 서비스 품질 등을 기준으로 세운상가 우수 매장을 선별해 인증하고, 이들 매장과 관련된 소식을 알리고 브랜드화합니다. 세운상가 체험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세운상가의 기술 장인이 강사로 나서는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p>	

창업가 조재천님은 오랜 기간 대기업에서 IT 기획 업무를 담당했고, HRD 기업을 창업해 20여 년간 경영했습니다. 서울의 현대사가 압축된 공간인 세운상가에 깊은 애정을 갖고, 2017년부터 세운상가와 관련된 여러 이야기를 정리하고 전파해왔습니다. 세운상가 해설사로 활동했으며, 2018년에는 세운상가 활성화 사업을 좀 더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학 관광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초기의 사업계획은 세운상가 관광 상품 개발에 초점을 맞췄으나 점프업5060 참여 과정에서 사업 방향을 조정하고, 현재의 창업 아이템을 도출했습니다. 조재천님은 향후 세운상가를 거점으로 전국 도시재생 지역과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종로선글TV를 한국 도시재생 사업의 새로운 모델로 성장시킨다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66

질문이 사고의 틀을 바꿨습니다

99

점프업5060 참여로 얻은 가장 중요한 성과를 소개해주세요.

처음에 구상한 사업 모델에서는 세운상가 관광객 유치에 주요 목표였고, 그동안 축적된 세운상가 스토리를 홈페이지에 연재하는 것이 주된 활동이었죠. 그런데 20대 후반~30대 초반인 젊은 컨설턴트들의 질문이 제 사고의 틀을 바꿨습니다. 기존의 단체들이 했던 활동과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상가의 주인인 상인을 잘 살게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지와 같은 질문입니다. 점프업5060 사업화 2단계 지원을 받기 위해 프레젠테이션을 한 후 심사위원들이 유튜브 개설을 최우선 과제로 추천했어요. 조연대로 유튜브 활동을 바로 시작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사업 참여 전후로 겪은 가장 큰 개인적인 변화는 무엇인가.

커다란 목적보다는 작은 변화를, 모두를 위하기보다는 한 사람이라도 잘살게 만드는 것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점프업5060 진행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만 원의 행복, 만 보의 행복’이라는 콘셉트로 매주 목요일 동기들과 함께 서울의 도시재생 지역을 방문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청년 사업가들을 만났습니다. 그들과 나눈 대화가 기억에 남습니다.

점프업5060 참여나 창업으로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소개해주세요.

아직 현재에 있어서 생계를 위한 수익 창출보다는 재능을 나누는 데서 의미를 찾고 있어요. 유튜브를 통해 많은 사람과 건전한 생각을 나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싶습니다.

2020년 5월 현재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유튜브 채널 ‘종로선글TV’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2개월 만에 구독자 5천 명, 40만 조회 수를 달성했습니다(6월 말 기준 구독자 1만 명). 최고경영자 대상 ‘진공관 앰프 제작 교실’을 개설했고, 세운상가 기술 장인과 협업해 세운상가 기념품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후 사업에 참여할 후배 신중년 세대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요.

당장의 이익보다는 장기적으로 인적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비 사업가로서 기본적인 비즈니스 매너와 기업이 정신을 익히는 것도 필요합니다. 답을 알려 주기보다는 생각하도록 만든다는 점에 컨설팅의 가치를 부여하는 게 중요하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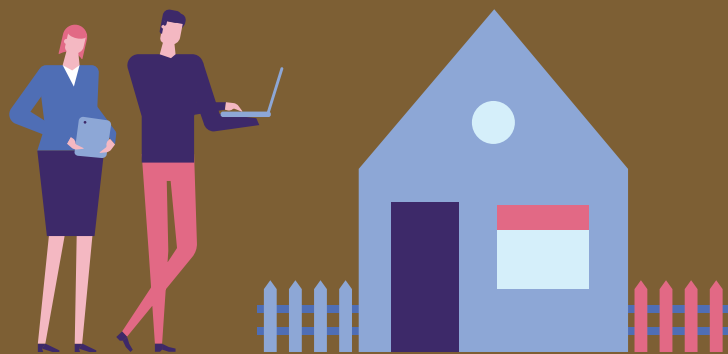
03



점포업5060 심층 탐구

사험화 1단계 트레이닝캠프
입문캠프
현장실습
심화캠프
현장탐방
해외탐방

사험화 2단계 고도화 컨설팅
사업비 지원



2019년
점프업5060
프로그램 구성



수료 기준 충족

사업화 2단계

컨설팅·자금
지원

고도화
컨설팅

사업비
지원

트레이닝 캠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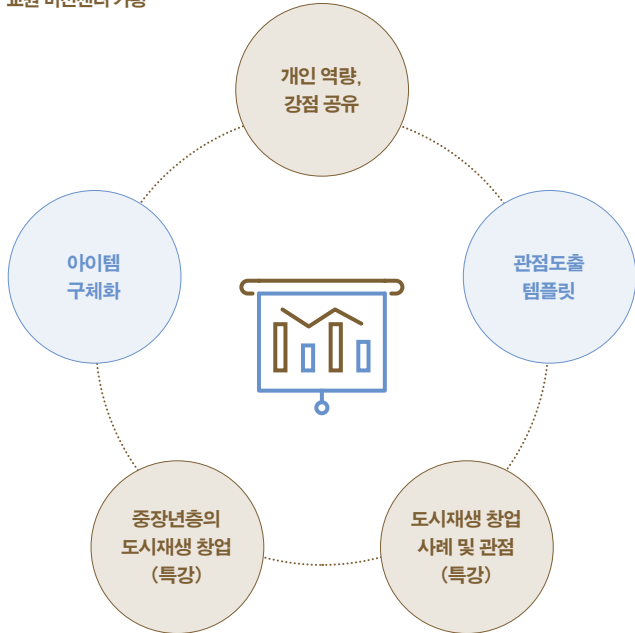


도시재생 창업가로서의 기본 역량 강화를 위해 3박 4일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참여자의 사회생활 경험을 토대로 개인의 강점과 역량을 발견하고, 현직 창업가 특강으로 도시재생 창업 사례를 탐색했습니다. 스토리보드를 활용해 사업 아이템을 구체화하고, 다른 참여자의 눈으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객관화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2019

9.3~9.6

- 3박 4일
- 교원 비전센터 가평



입문
캠프

창업 초기 단계에 알아야 할 7단계 창업 방법론을 익히고, 지역의 문제와 원인을 파악한 뒤 이를 해결할 창업 아이템을 도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장 상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작업도 중요한 미션이었습니다. 창업 진단 검사로 팀별 창업 실행 단계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집중해야 할 과제를 점검했습니다.

2019

9.19~10.25

- 10회 교육, 총 80시간
- 서울혁신파크



현장 실습



입문 교육에서 배운 이론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선행 사례를 토대로 비즈니스 모델과 사업 형태를 구체화하기 위해 현장실습을 진행했습니다. 팀별 창업 아이템 등을 고려해 21개 실습 기관과 25개 참여 팀을 매칭했습니다. 각 팀은 선배 창업가에게 직접 경영 노하우를 전수받고, 업계 관계자와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2019

10.28~11.24

- 상기 기간 중 팀별 10일, 1일 8시간
- 실습 기관: 감성달빛·셀위재즈, 광보사, 나인앤드, (주)두꺼비하우징, (사)부산사회적경제네트워크, 비어스웨딩, 생폴(매리앤우드 목공방), 서촌 그 책방, 양코르브라보노동조합, 어니스트밀, 언더독스㈜, 어뮤즈트레블, 어반플레이, 역사책방, 자연예감, (주)진구네식탁, 창신송인도시재생협동조합, 카페 옴니버스, 피스테일, (주)한국직업개발원, 행복한책방

사업장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었던 시간

아이템을 실제 공간에서 시뮬레이션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 시행에 필요한 법적 요건, 사업의 진화 과정을 배웠어요

실습처의 수익·지출 구조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공간 활용과 구성원 업무 배분 노하우를 배웠죠

현장실습 참여자 사후 평가



심화 캠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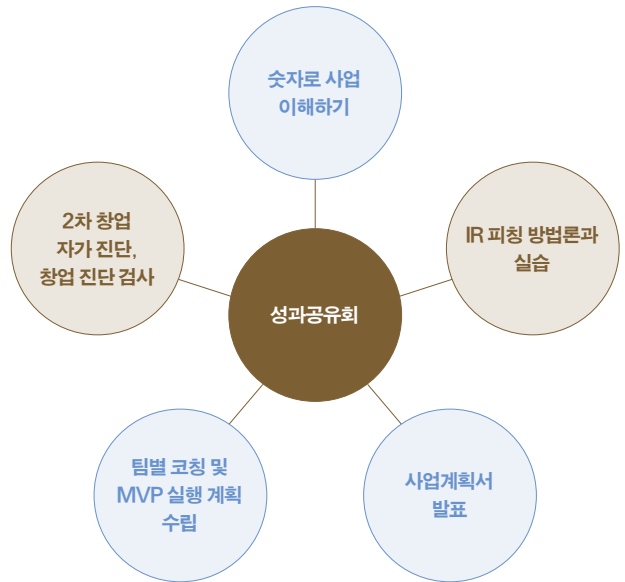


사업 모델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사업화 가능성을 최종 점검했습니다. 마케팅, 콘텐츠 기획, 지표 관리 등 좀 더 심화한 실무 노하우를 배우고, 팀별 전담 코치의 도움을 받아 사업계획서를 다듬었습니다. 성과공유회를 열어 각 팀의 성장 과정과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도시재생 창업가로서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2019

11.14~11.29

- 5회 교육 및 성과공유회, 총 48시간
- 서울혁신파크, 코워킹센터 히브루스(성과공유회)



현장 탐방



숨 가쁘게 돌아가는 교육 일정 사이에 두 차례 국내 현장탐방을 진행했습니다. 9월 트레이닝캠프 마지막 날, 마을공동체로 잘 알려진 서울 성미산 마을을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둘러보았습니다. 12월에는 전북 군산시를 찾아 다양한 도시재생 창업 사례를 확인하고, 사업 현장에서 관계자들을 만나 사업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했습니다.

성미산마을

2019

9.6

- 지역 협동조합, 마을기업, 로컬 비즈니스 사례 탐방 및 간담회
- 작은나무협동조합, 비누두레, 좋은날협동조합, 우리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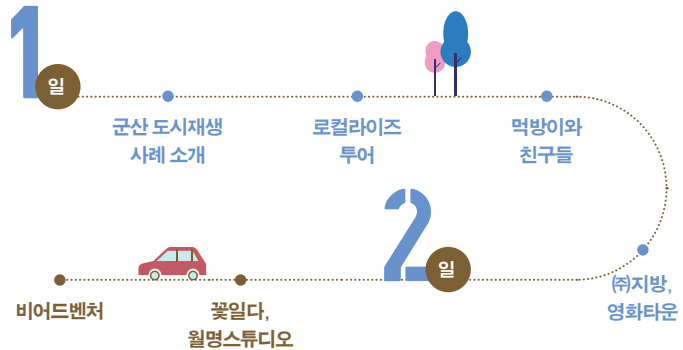


군산

2019

12.2~12.3

- 1박 2일
- 군산 도시재생 사례 소개, 로컬라이즈 투어, 도시재생 스타트업 방문, 문화 콘텐츠 체험



해외 탐방



옛것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문화·예술 공간을 만드는
감성적 도시재생의 본보기

조금은 시끄럽고
시간이 지체되어도 철저히
주민 주도 사업을 실천한다

주민이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추진한
도시재생 사업이 많다

오래된 것과 현재의 조화,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한 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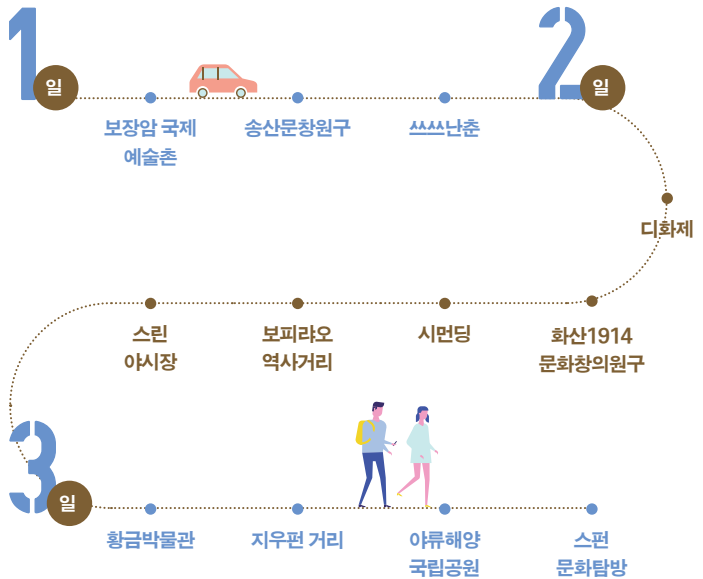
해외탐방 참여자 탐방 보고서 중

도시재생 창업가에게 새로운 영감을 줄 수 있는 사례를 찾아 다수의 도시
재생 성공 사례를 보유한 대만 타이베이 지역으로 떠났습니다. 폐공장과
양조장을 창조적으로 리모델링한 문화·예술 공간, 낙후 지역에서 젊은 예
술가가 모여드는 문화 명소로 탈바꿈한 오래된 거리 등을 찾아 계획서를
빠곡히 채운 탐방 일정을 모두 소화했습니다.

2020

1.7~1.10

- 3박 4일
- 사업화 1단계 수료생 중 참여 희망자 25명
- 대만 타이베이 및 인근 지역



고도화 컨설팅



각 팀이 사업화 1단계 수료 후 교육 과정에서 도출한 창업 아이템을 재점검하고, 실제 창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잘 대처하도록 고도화 컨설팅을 시행했습니다. 수요 조사를 거쳐 팀별로 맞춤형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각 분야 전문가, 현직 창업가와 매칭했습니다. 각 팀은 네 차례에 걸쳐 대면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2020

2월~8월

- 팀별 4회(1회 4시간) 진행
- 경영 전반, 투자, 법률, 세무, 회계, 노무, 특허, 브랜딩, 홍보, 도시재생, 디자인 등
- 팀별 상황에 따라 투 트랙(단기, 심화)으로 구분해 진행(단기+심화 트랙도 가능)



사업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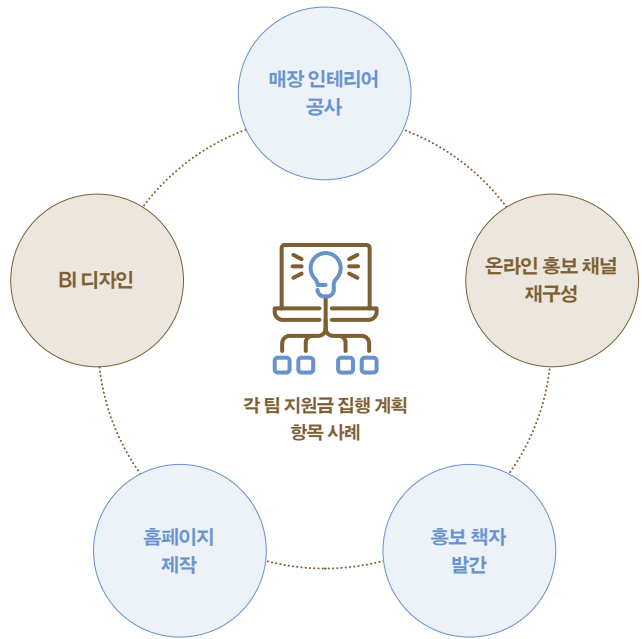


우수 참여 팀이 창업 아이템을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원활하게 사업을 성장시켜 가도록 사업화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자금 지원을 신청한 1단계 수료 팀을 대상으로 대면 심사를 거쳐 사업화 계획과 지원금 편성 및 집행 계획을 검토했습니다. 12개 팀을 선정해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2020

2월~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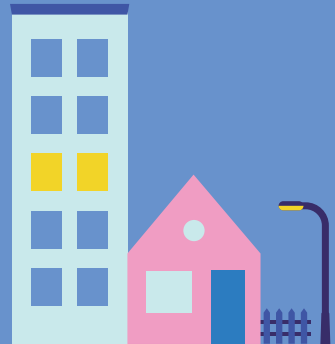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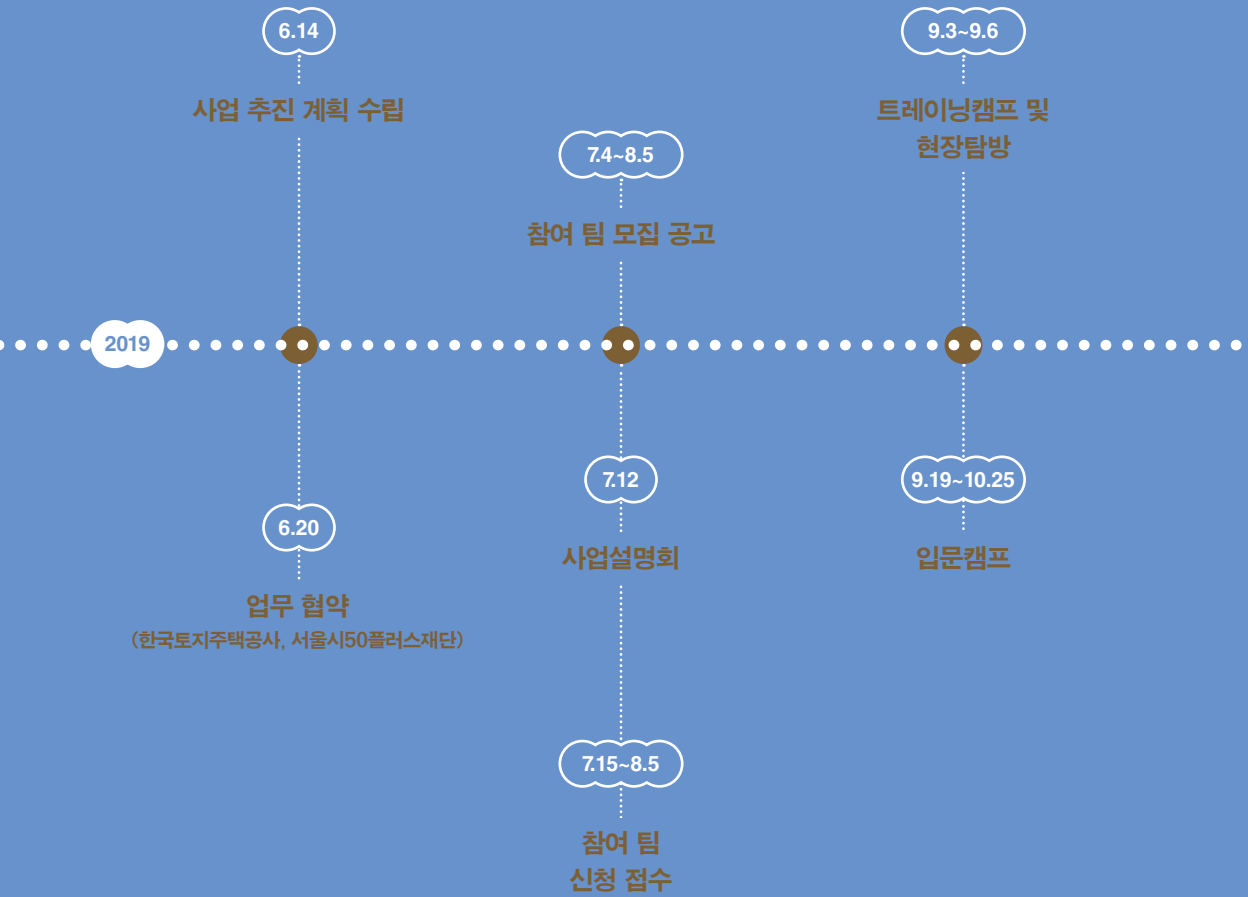
- 사업화 1단계 수료 팀 대상
- 팀당 최대 2천만 원 지원
- 지원금은 총사업비의 50% 이내로 편성, 자부담금을 지원금과 1:1로 매칭
- 지원 항목: 매장 모델링(인테리어, 간판 및 내부 사인물 설치 등), 홍보 및 마케팅 관련 비용



설명회

신청
접수서류
심사대면
심사지원
협약지원금 집행
* 모니터링사업비 정산
및 결과 보고

타임라인





사업 후기



홍준표

한국토지주택공사
총무고객처 처장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쇠퇴한 지역을 되살려 쾌적한 주거환경과 지역 일자리 기반을 조성하는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마음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주민이 그리는 지역의 미래를 충실히 반영하지 않으면 외형에 치중한 사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도시재생 사업에 신중년 세대를 초대하고 싶었습니다. 적절한 준비도 없이 자영업 창업에 내몰리고 있는 많은 신중년 세대가 도시재생 분야에서 창업의 새 비전을 제시할 수 있었으면 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다년간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해 왔지만, 신중년 세대와 함께하는 프로젝트는 첫 시도였던 만큼 우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신중년 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꾸준히 고민해 온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함께하였기에 점프업5060 사업을 과감히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창업 지원 사업이 신중년 세대를 새로운 파트너로 맞이하고, 도시재생 사업의 좋은 선례를 확보할 수 있게 된 점은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이제 더 많은 신중년 창업가를 동네와 골목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정나리

한국토지주택공사
총무고객처
사회공헌단 단장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신중년 도시재생 창업 지원을 통해 상권이 사라지고 빈집이 늘어나는 낙후된 지역이 활성화되고, 이러한 변화가 주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단순 일회성 창업 지원이 아니라 지역, 사람, 환경을 따뜻한 시선으로 관찰하고 지역을 변화시킬 창업 아이템을 가진 창업가를 찾아 다양한 네트워크와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창업가 스스로 성장하도록 돕고자 했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도출된 창업 아이템을 보면서 어쩌면 어떤 마을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원한 창업가들 덕분에 생기 없던 골목이 점차 새롭게 단장되고,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울 수 있는 마실터, 살림터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에서 멈춤은 없습니다. 멈춤조차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더 나아가기 위한 더딘 흐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퇴직은 단절이나 멈춤이 아니며,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더딘 흐름입니다. 그래서 “창업에 용기 내어 도전하자. 별것 아닌 것이 세상을 바꾼다”라고 함박웃음을 보내주는 신중년 창업가들의 열정과 선행 창업 아이템이 가진 영향력을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설렘과 불안. 2015년에 청년들을 위한 창업 지원 사업인 'LH 소셜벤처'를 처음으로 시작하면서도 느꼈던 마음이었습니다. 새로운 사업에 대한 설렘과 불안에 '이 사업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했던 망설임은 5년이 지나 점프업5060을 시작할 때도 똑같았습니다. 신중년 세대를 위한 도시 재생 창업 지원 사업은 어떻게 설계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했습니다. 도시 재생 스타트업은 이미 누군가 한 번 가본 길입니다.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개척한 새로운 창업의 영역으로 신중년 세대를 진출시키고 싶었습니다. 초기 스타트업에 진출한 청년들보다 많은 경험과 기반이 있는 신중년 세대의 진출이 어쩌면 쉬울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망설임을 접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항상 기대와 불안을 동시에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말했습니다. “꿈을 품고 뭔가 할 수 있다면 지금 그것을 시작하라.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용기 속에 당신의 천재성과 능력과 기적이 모두 숨어 있다.” 점프업5060을 통해 새로운 꿈에 과감히 도전한 신중년 세대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남호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총무고객처
사회공헌단 차장

남경아

서울시50플러스재단
일자리사업본부 본부장

퇴직 후 또다시 일자리 시장에 뛰어드는 신중년 세대에게겐 녹록지 않은 현실이 기다립니다. 그러나 재단은 신중년 세대의 저력을 믿습니다. 오랜 경력과 뛰어난 능력을 지닌 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소개하고 적절한 지원이 따른다면, 신중년 세대는 분명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주체로 일어설 것입니다.

점프업5060은 이러한 재단의 믿음을 한층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동네에서, 골목에서, 신중년 창업가들이 그려낸 미래는 우리가 현실을 뛰어넘어 계속 상상해야 할 이유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어려운 만큼, 어느 때보다 상상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사업에 함께한 모든 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1년에 걸쳐 진행된 만큼 정말 많은 분의 땀이 뻗 사업입니다. 재단은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점프업5060은 그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참여자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돋보이는 사업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재단 실무진은 교육부터 사업비 지원에 이르기까지, 촘촘하고 체계적으로 짜인 프로그램을 구현하기 위해 오랜 시간 고민하고 공을 들였습니다.

항상 성실하고 의욕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해 실무진의 노력에 빛을 보게 해주신 참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걸음 뻗습니다. 더 많은 신중년 세대와 함께하도록 우리는 다시 땀 흘릴 것입니다.

홍 선

서울시50플러스재단
사업개발팀 팀장

신중년 세대와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실무진과 고민을 주고받으며 서울과 진주를 오갔습니다. 고민의 깊이만큼 점프업 5060도 모습을 갖추어 갔습니다. 사업 첫해라 시행착오를 겪을 때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청년 창업 지원 사업 경험을 참고해 재단 사업개발팀 동료들과 머리를 맞대고 함께 답을 찾았습니다.

2019년 점프업5060에 참여한 선생님들의 이해와 배려, 사업화를 향한 열정과 노력으로 비로소 사업이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점프업 5060은 신중년 세대의 또 다른 가능성을 발견하게 해주었습니다. 이 가능성을 이어가기 위해 2020년에도 점프업5060은 계속됩니다.

김시유

서울시50플러스재단
사업개발팀 PM



김슬기

서울시50플러스재단
사업개발팀 PM

사회생활 10년 차에 접어들며 꿈과 열정이라는 단어에 무심한 마음이 들 때쯤 2019년 점프업5060 창업가 선생님들을 만났습니다. 청년 못지않게 뜻한 바에 꿈과 열정을 가득 담은 선생님들을 보며 몸과 마음이 치쳐가던 저의 사회생활도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선생님들은 각기 다른 아이টে으로 창업을 준비하면서도,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하나의 꿈을 향해 달려가듯 서로 도우며 끈끈한 애정을 과시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매력은 물론이고, '함께'라는 울타리 안에서 뭉칠 뭉쳤을 때 더 돋보인 이분들의 매력은, 겪어본 사람이 아니면 모를 겁니다. 신중년 도시재생 창업가 여러분이 한마음으로 만들어가는 멋진 도전을 응원하며, 아낌없이 박수를 보냅니다.

2019년 점프업5060 사업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도전과 열정입니다. 모두 소화하기에 다소 벅찰 수도 있는 교육 과정을 거뜬하게 수료한 선생님들을 보며 도전은 나이와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배웠습니다.

성과공유회에서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이 멋진 창업가로 무대에 선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신중년, 도시재생, 창업. 처음엔 물음표였던 각각의 단어가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선생님들만큼 저 역시 많이 배우고 성장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김보영

서울시50플러스재단
사업개발팀 PM

조상래

언더독스㈜ 대표

빠르지는 않지만 신중하고, 순간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오랜 시간 고민해 온 생각들을 실행으로 옮깁니다. 제2의 삶을 위한 과정이라 스펀지처럼 온전히 흡수하고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신중한 만큼 마음속 동기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청년 코치의 시각으로 신중년 창업가의 아이디어가 구체화하는 과정을 통해 창업가도 코치도 같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고민과 노력이 커져야 쌓인 사업계획 발표 날, 청년 코치들도 짜릿했습니다.

신중년 창업가는 청년 창업가와 분명 다릅니다. 하지만 그 차이가 '못함'이나 '느림'은 아닙니다. 서로 장단점이 다릅니다. 언더독스가 만났던 신중년 창업가들은 프로그램 기간 그 단점마저 극복하기 위해 누구보다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 온, 하고 싶은 일들을 잘 해내고 싶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프로그램이 끝나고 청년 코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정말 많이 배울 수 있던 시간이어서 저희아말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인에서 창업가로의 커리어 전환을 앞두고 겪는 두려움은 청년보다 신중년 세대에게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보다 지켜야 할 것이 많은 나이에 도전하는 신중년 창업가는 새로운 도전에 소극적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점프업5060 참여자 선생님들을 처음 뵈 자리에서 그런 생각이 선입견이었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점프업5060 참여자 선생님들은 제가 만났던 그 어떤 창업가보다 끈기 있게 자신의 사업을 준비하는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함께 사업에 참여하는 선생님들을 경쟁자가 아닌 동료로서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며 1년간 창업가로서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자신만의 속도로, 창업가로의 커리어 전환에 나서는 선생님들의 앞날을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경

언더독스㈜ 디렉터



2019년 점프업5060을 만든 사람들

신중년 창업가

*가나다순

강재훈 구본숙 길기태
김병준 김원식 김은주
박경정 박남화 박서영
박유하 박장배 박현정
서창희 송종훈 안인선
양해경 염기명 원라미
윤선영 이경미 이연우
이원경 이인환 이정민
이향연 임성호 전순희
조소연 조재천

주최·주관

한국토지주택공사

홍준표 총무고객처 처장
정나리 사회공헌단 단장
남호근 사회공헌단 차장

서울시50플러스재단

남경아 일자리사업본부 본부장
홍 선 사업개발팀 팀장
김시유 사업개발팀 PM
김슬기 사업개발팀 PM
김보영 사업개발팀 PM

파트너사

언더독스㈜

